



VINTAGE REPORT
2015

[VINTAGE POINT: **98**, 속성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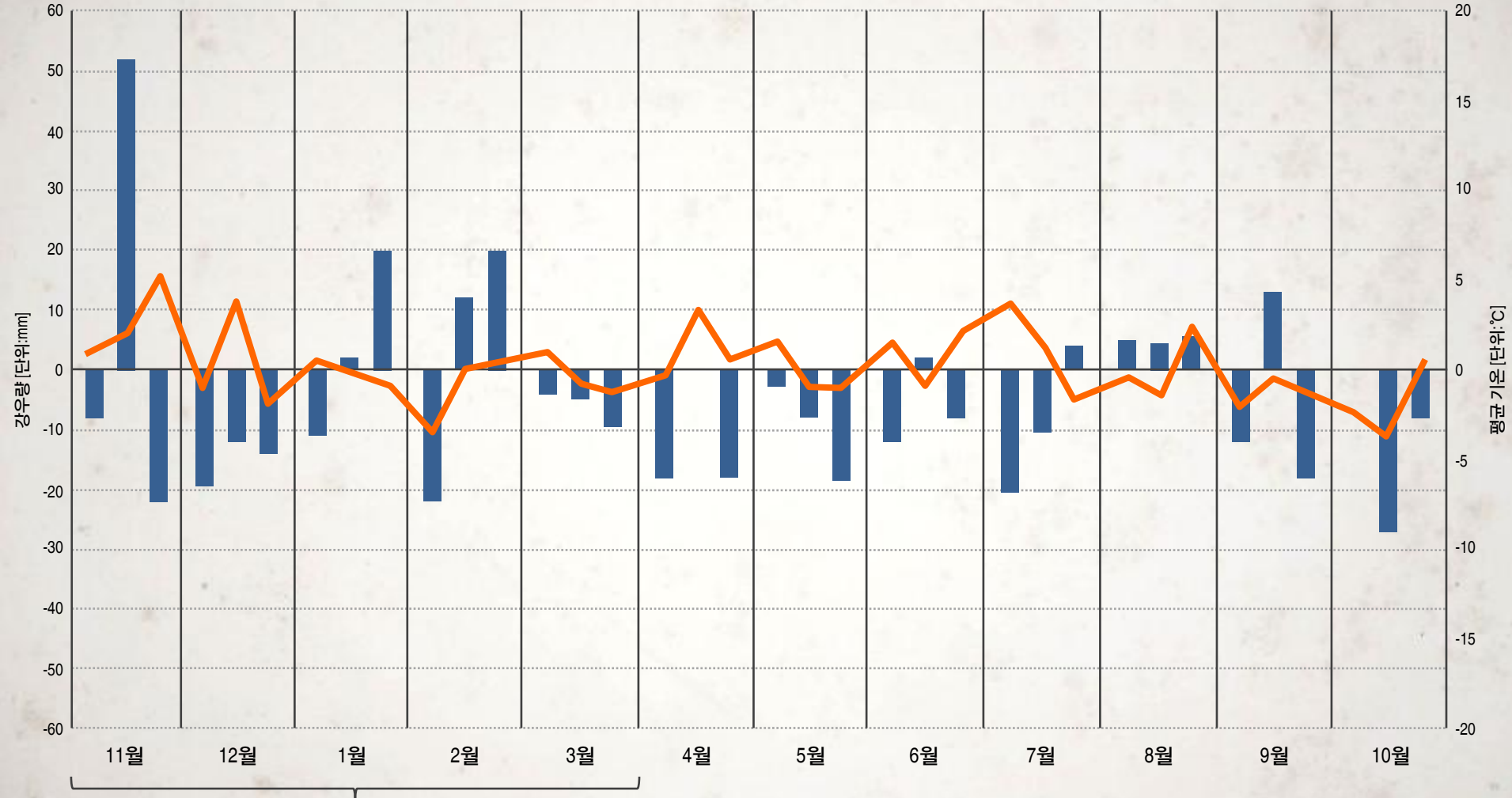
“

4월과 7월 말 사이에 비가 적게 내린 것이 특징으로, 기온은 종종 높았으며 몇 일은 30도에 이르고, 6월에는 40도까지 올라간 날도 있었다. 포도 나무의 질병은 적었고, 개화 시기가 빨랐지만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특별히 빨랐다고 볼 순 없다. 8월에 일시적인 소나기가 내렸지만 금새 기온이 상승하여 착색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확 시기까지 포도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대략 9월 21일경 수확이 시작되고 몇 차례의 비가 내렸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 10월 10일 까베르네를 포함해 95%정도 수확이 마무리 되었으며, 와인은 풍만하고 부드러운 타닌과 인상적인 풍미를 표현한다. 종합적은 2015빈티지는 매우 특별한 빈티지로, 과거의 그레이트 빈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빈티지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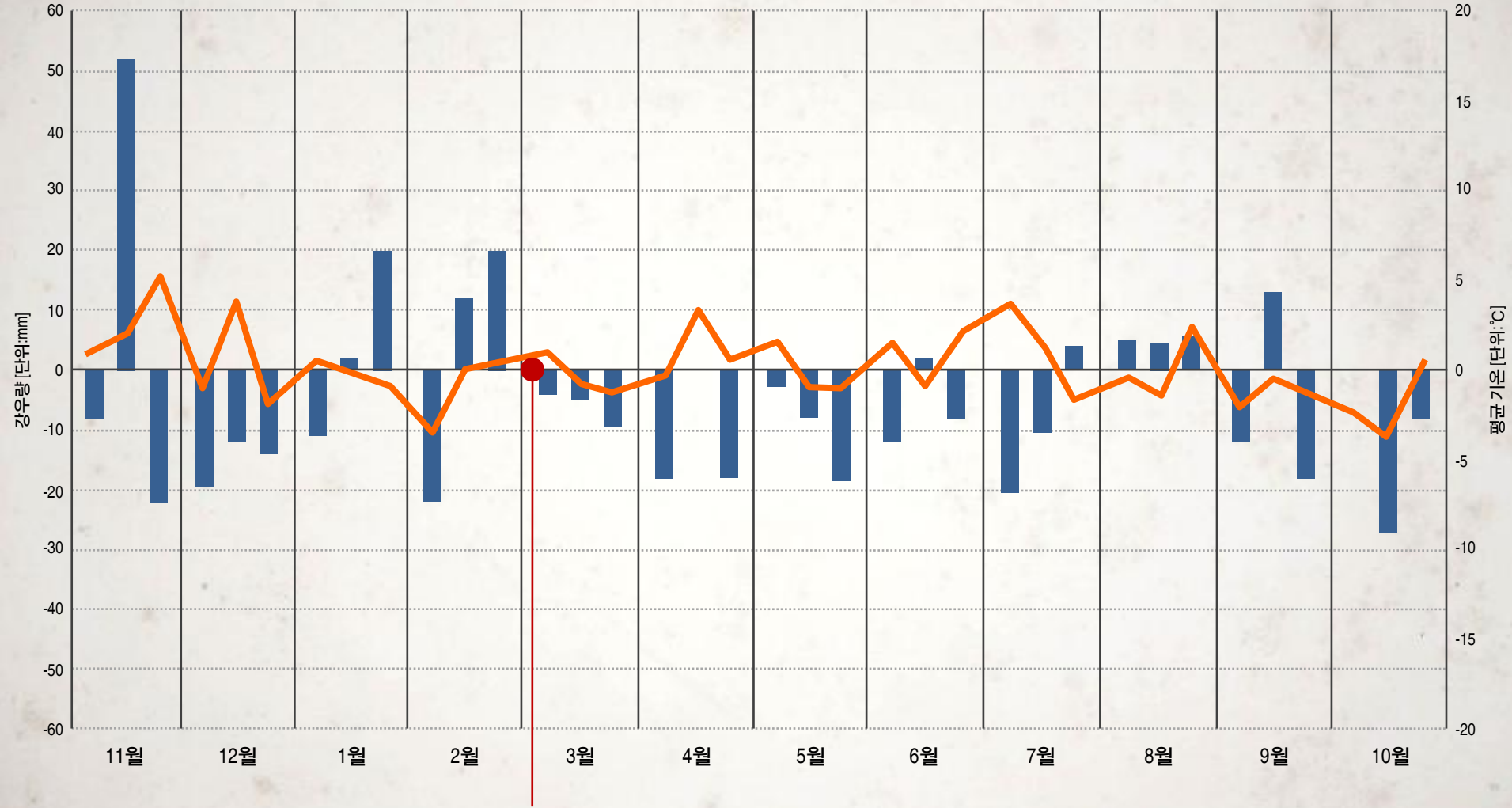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겨울철 강우량은 보통 수준으로 다른 AOC와 비교하면 -24mm정도 적게 내렸지만, 포도 성장 사이클의 시작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2014년 인디언 썸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0.3도 정도 높았고, 11월 말까지 특별히 춥지 않고 온화한 기온을 보여주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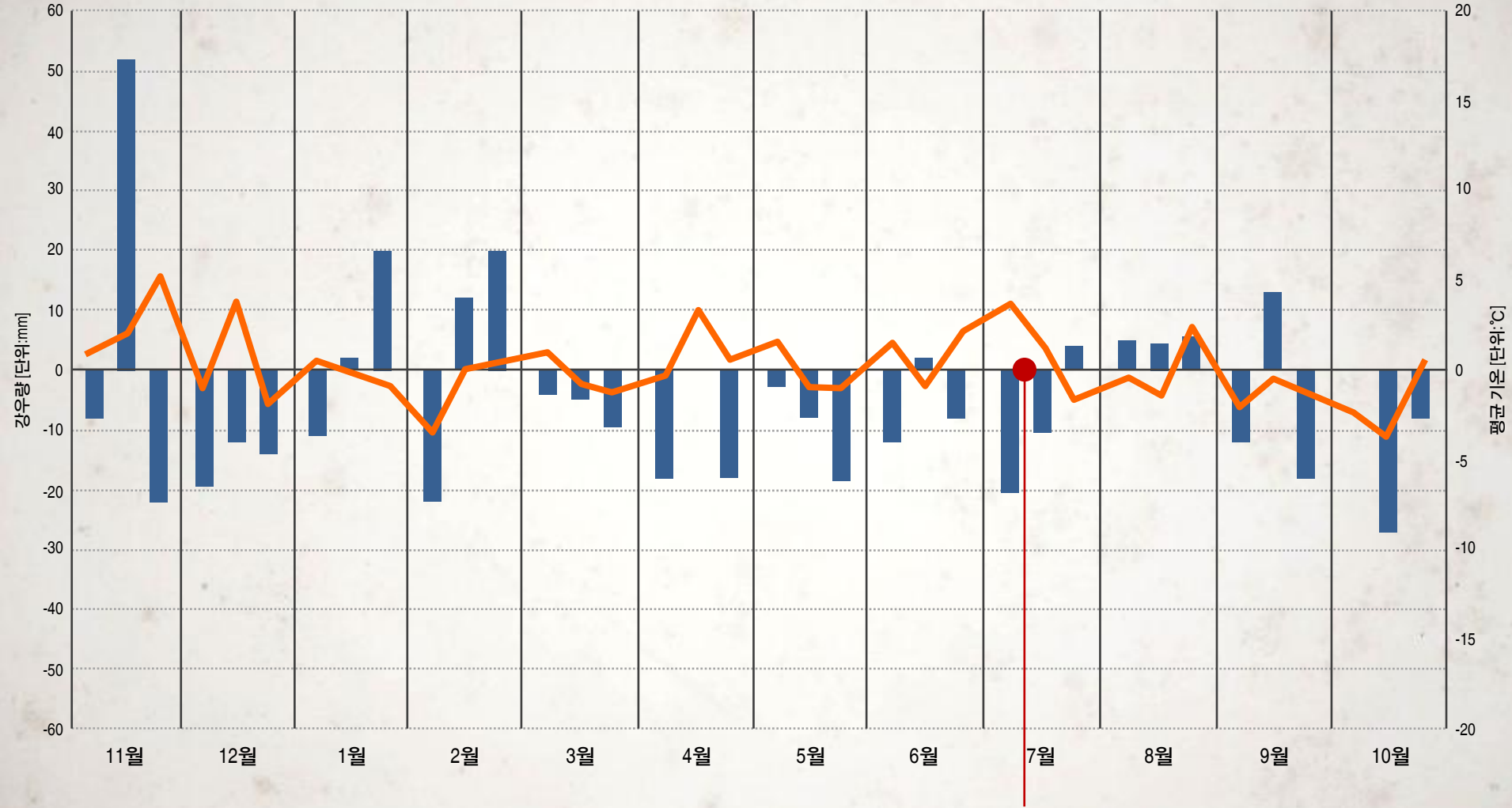


춥고 건조한 3월 날씨로 발아가 살짝 지연되었지만 4월 ~ 5월초 따뜻하고 적게 내린 비로 인해 발아와 성장 주기에는 지장이 없었다
 충분한 햇살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2015년 개화 시기는 이례적을 매우 빨랐으며, 빠른 개화 덕에 늦은 발아를 만회할 수 있었다

VINTAGE REPORT 2015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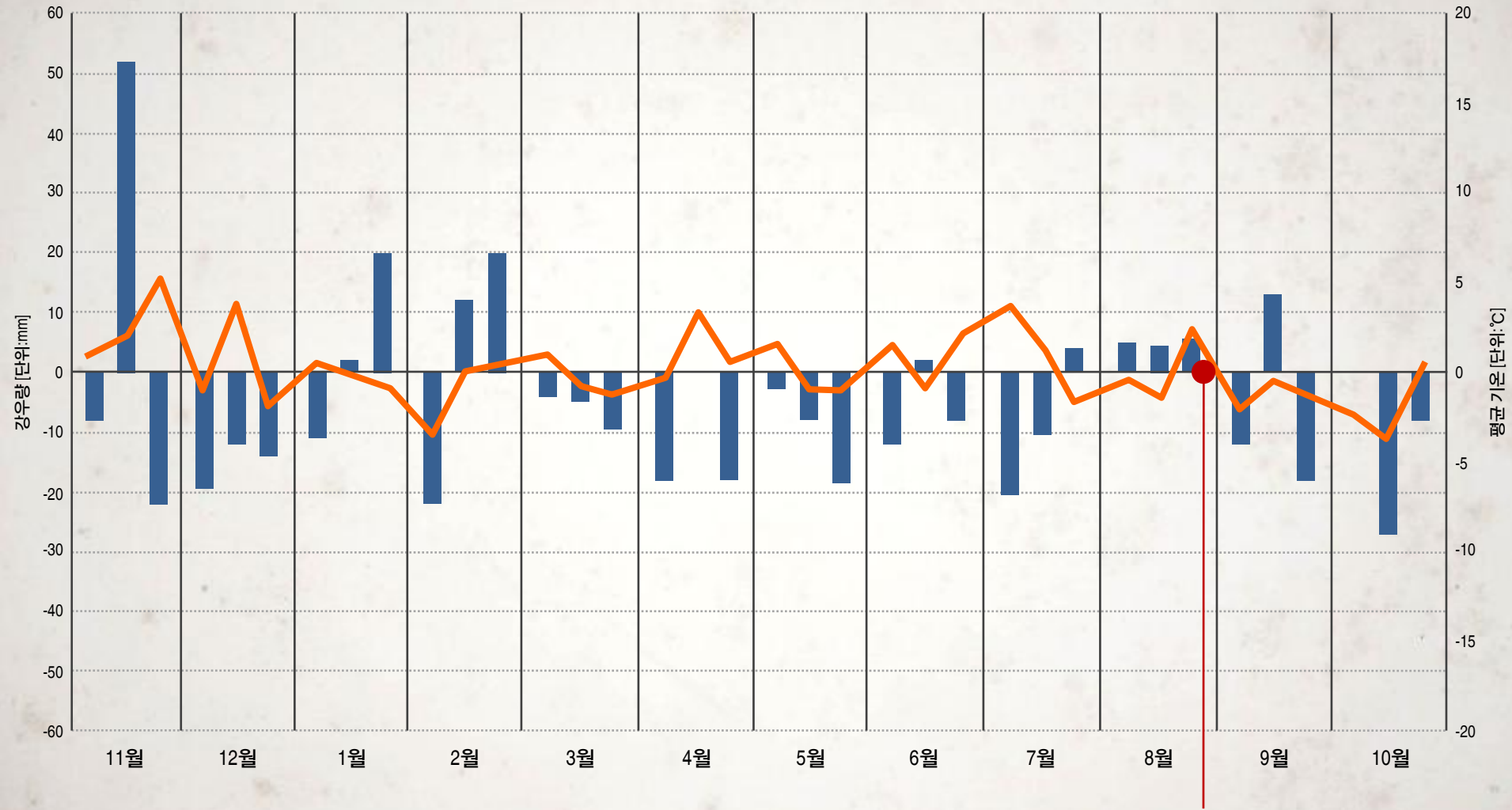


4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풍부한 일조량과 -113mm 정도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6월 말과 7월 초 매우 높은 기온과 적은 강우량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농축미의 포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VINTAGE REPOR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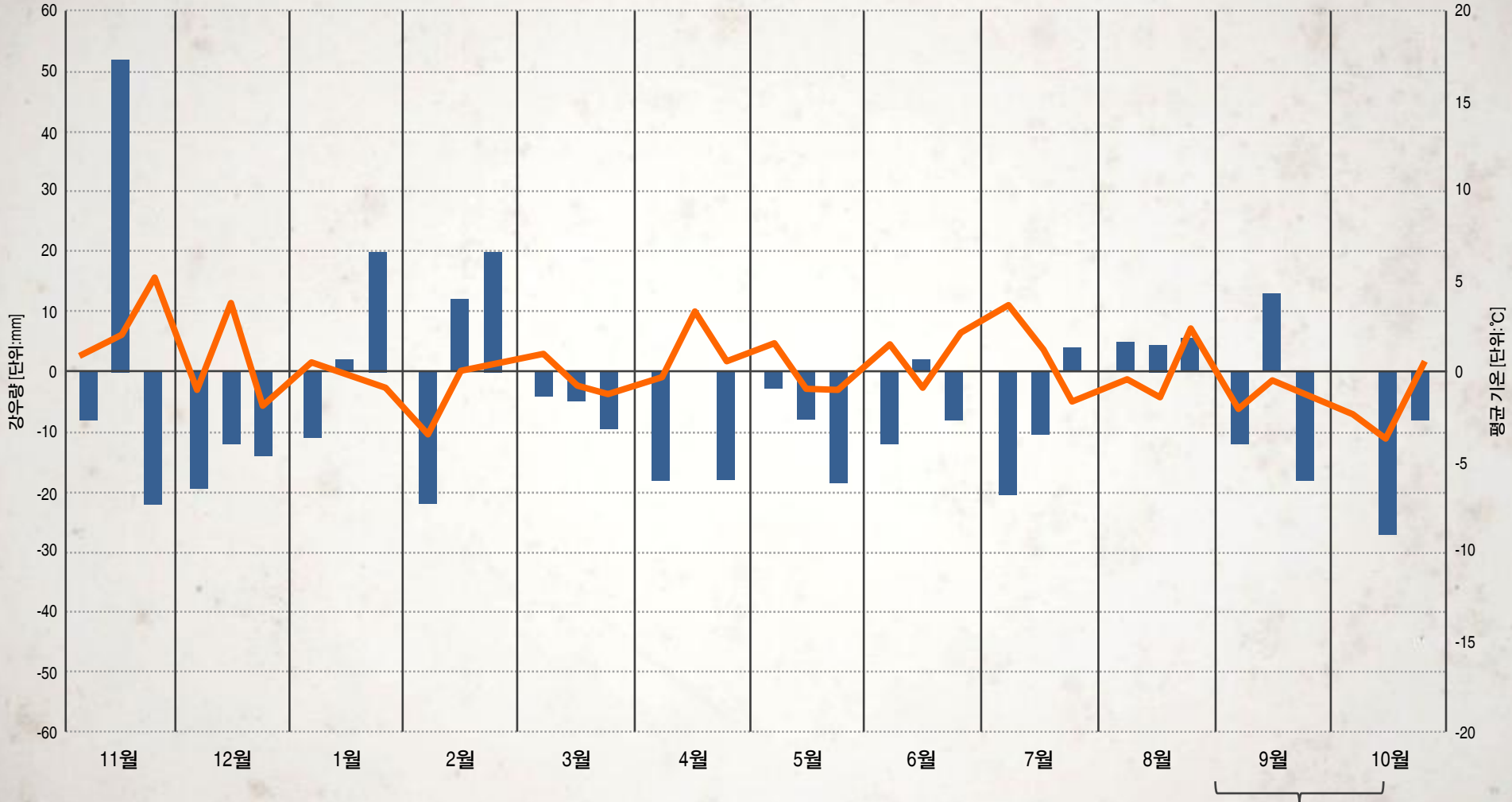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8월 말까지 풍부한 햇살과 야간의 서늘한 기후가 공존하면서 평상시보다 포도는 천천히 성숙하였다. 기술적으로도 페놀 성분과 당도, 산도의 밸런스가 완벽한 상태였으며, 껍질에는 풍부한 방향성 성분과 부드러운 타닌, 농축미가 높은 상태를 이루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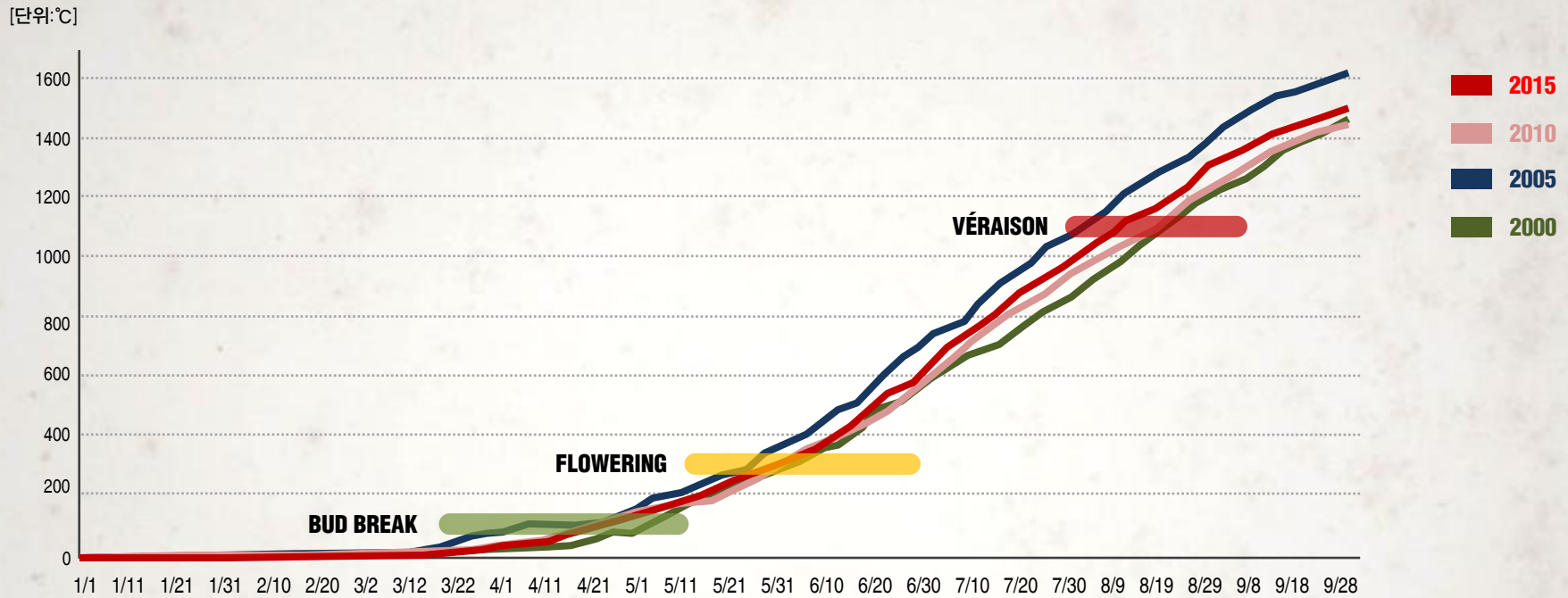


10월 2일 13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확하는 동안 낮에는 온화한 기온과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포도는 매우 건강하고 완벽한 상태로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VINTAGE REPORT 2015



일 평균 10도 이상 기온 합계표



2015 빈티지 분석

2015빈티지의 경우 2000빈티지와 유사한 스타일

적절한 강우 조건으로 인해 뛰어난 빈티지로 탄생되었으며, 기온 조건에서도 훌륭한 빈티지인 2000, 2005와 2010빈티지와 유사하다 유일하게 2005빈티지만이 2015빈티지보다 따뜻한 봄날이 지속되어, 평균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성장 주기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했다

2000, 2005, 2010, 2015빈티지 모두 개화가 빨랐으며, 모두 유사한 형태의 평균 기온 그래프를 볼 수 있다

2015빈티지는 2000, 2010빈티지보다 빨리 성숙되었으며, 비슷한 수확 시기를 감안하면 대략 7~10일 정도 더 성숙할 시기를 확보했으며 결과물인 포도의 상태도 매우 좋았음, 이러한 추가적인 성숙 시간 덕에 좋은 밸런스 와 섬세함,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VINTAGE REPORT
2005

[VINTAGE POINT: **100**, 숙성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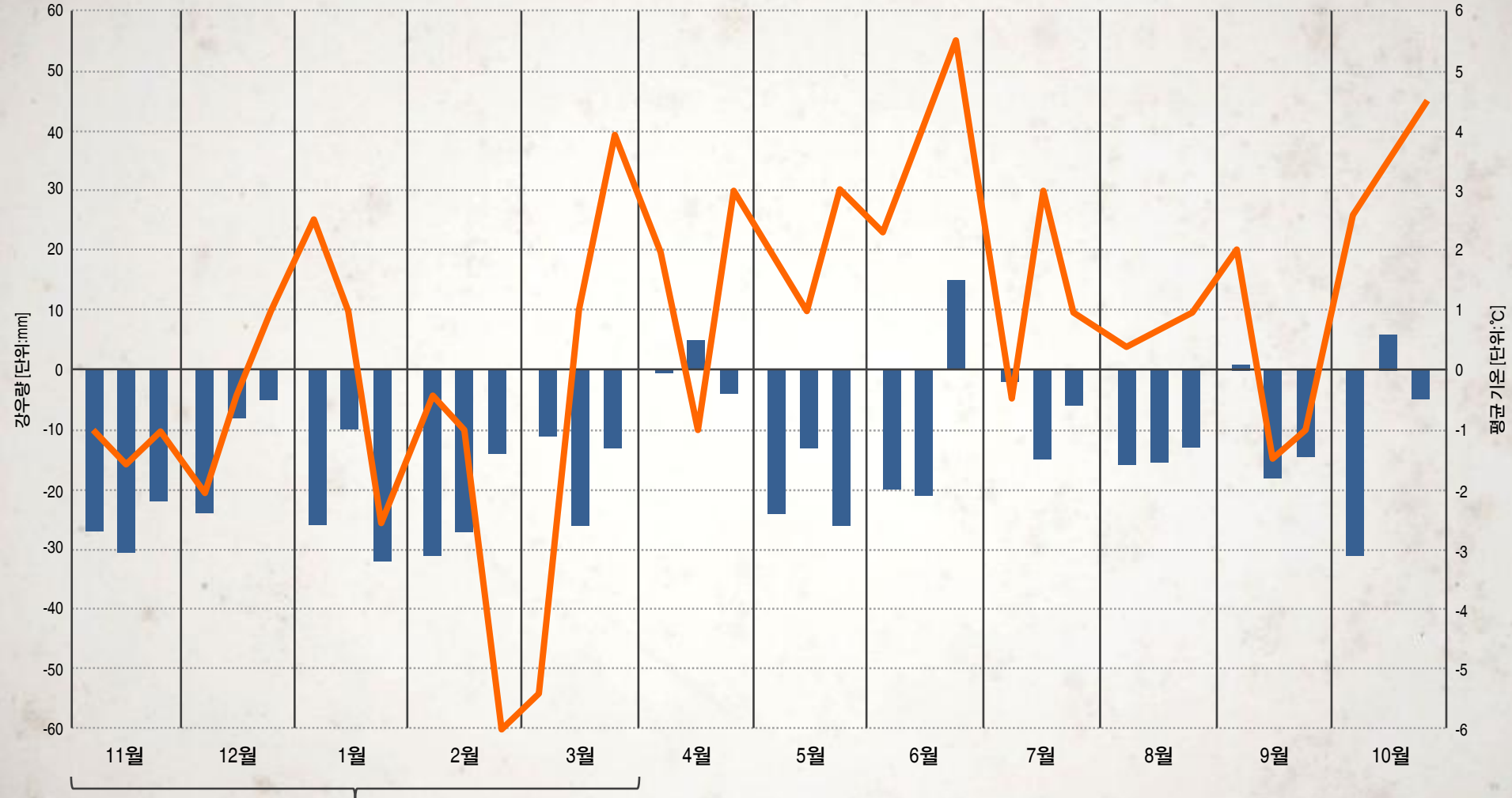
“

겨울철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포도 나무의 질병 피해는 적었으나
수분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자갈 토양의 원산지의 경우 더욱더 그러했다
따뜻한 봄 날씨 덕에 발아와 개화 모두 잘 진행되었으며, 이례적인 기상 조건으로 인해
포도 열매의 페놀 성분과 당도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최상의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005빈티지는 포도 나무에 공급할 수분에 대해
토양의 수분 조절 능력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빈티지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나무는
표토와 심토에서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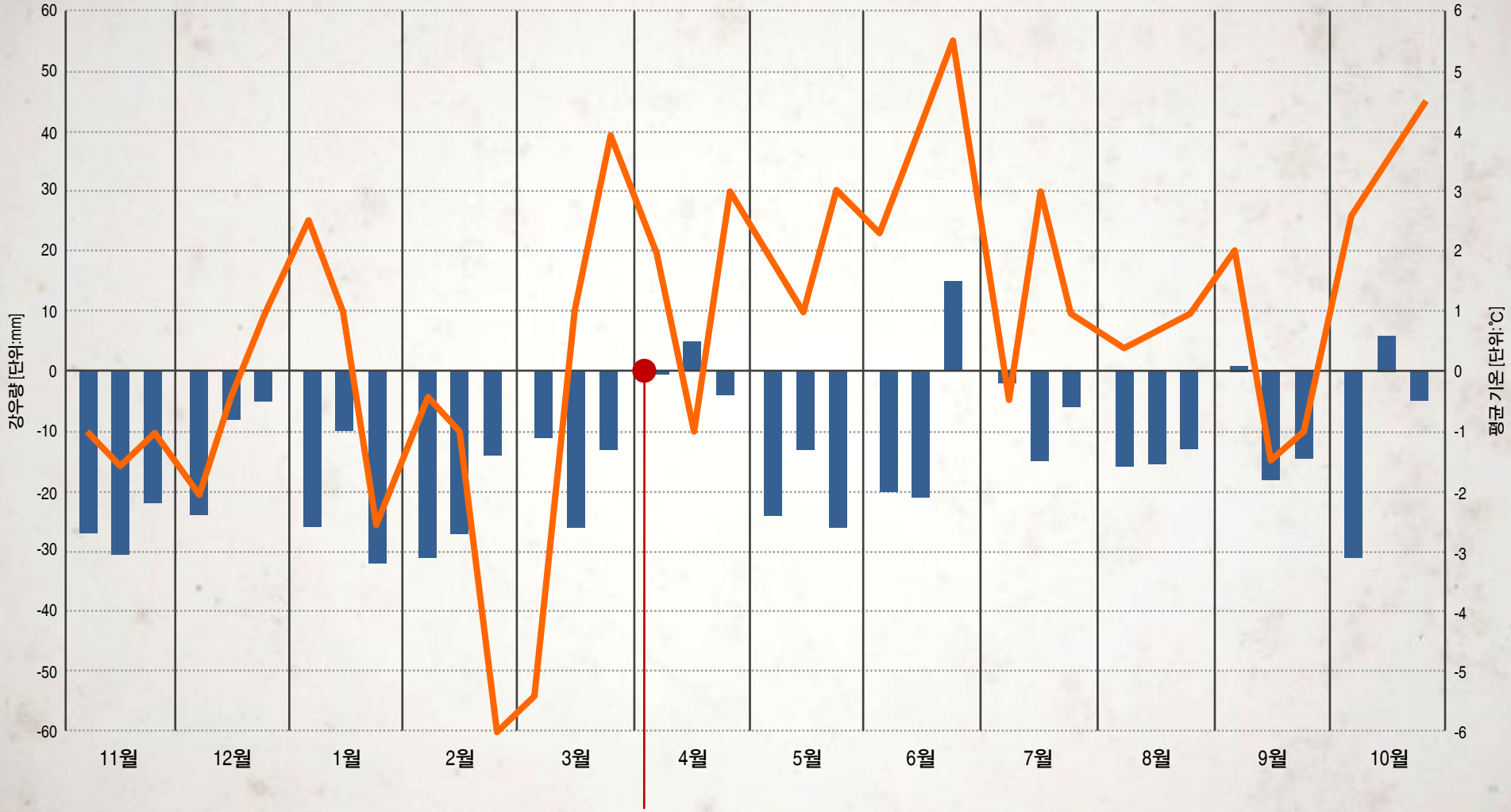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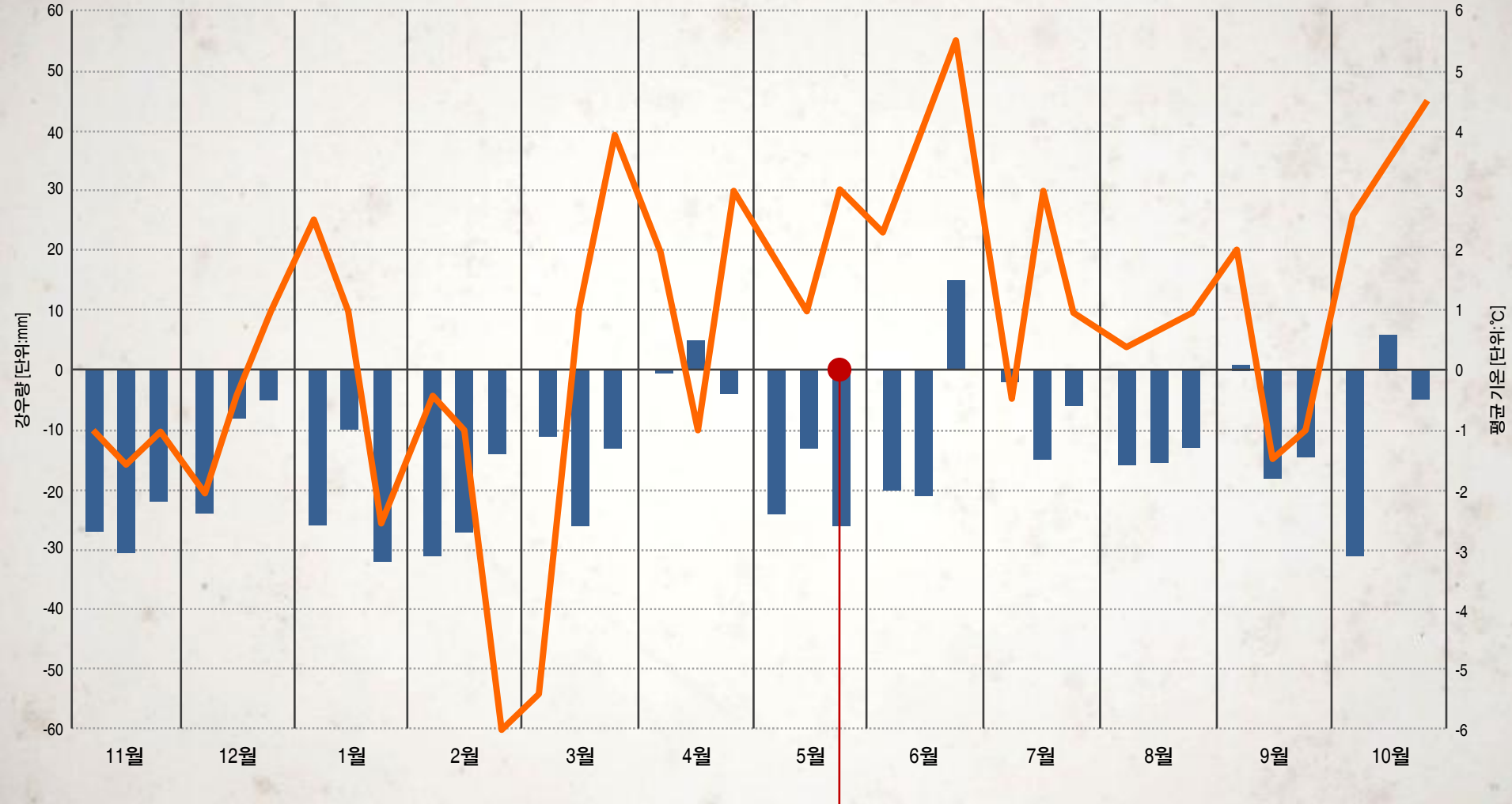
1월 온화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균 겨울 기온에 비해 1.1도 정도 낮았다. 강우량은 평균보다 300mm정도 적었으며, 이러한 기상 조건에 의해 포도 나무의 질병 피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갈 토양이 많은 산지의 경우 수분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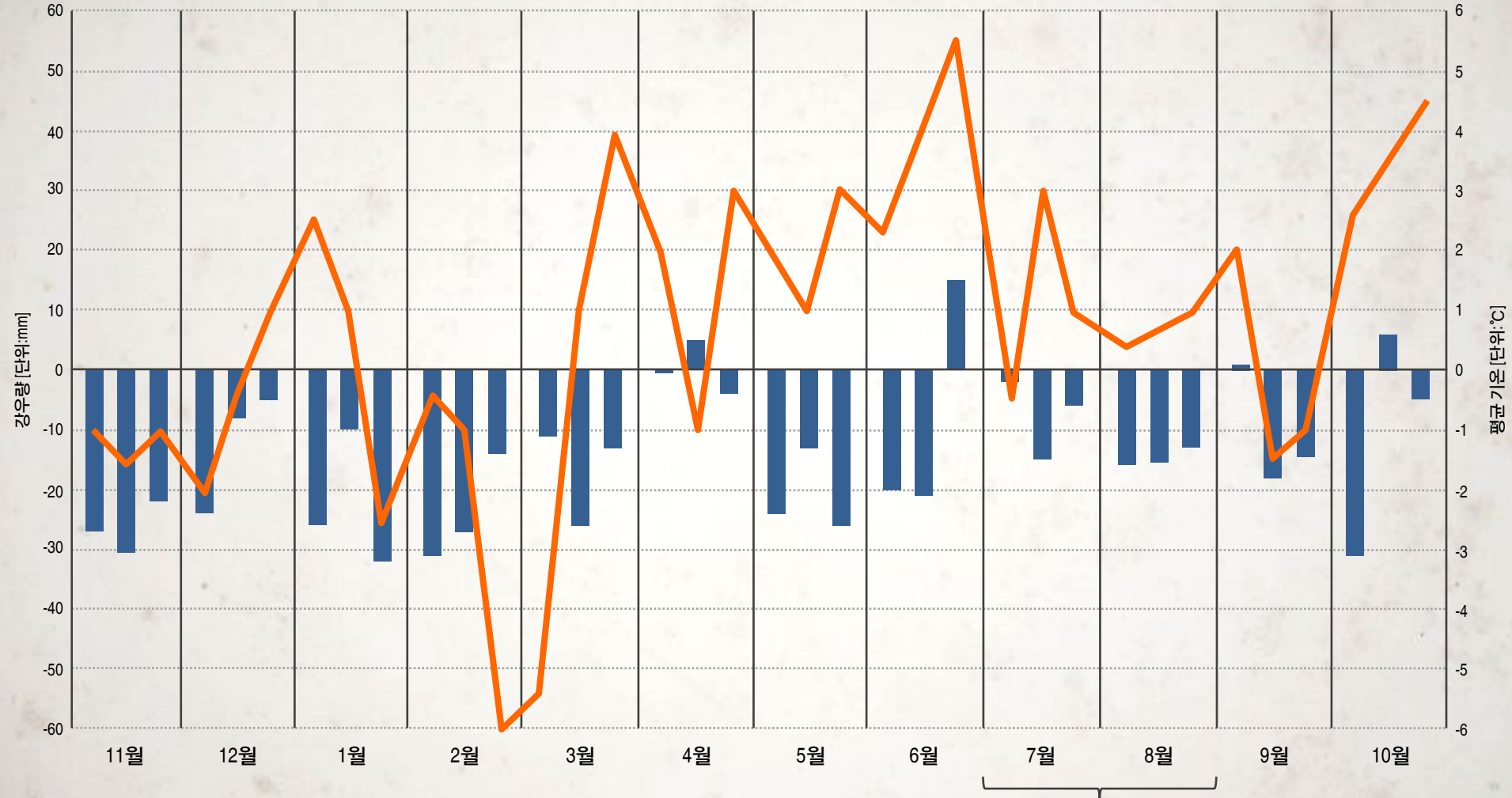
온화한 봄철 기상 조건으로 포도 나무의 발아가 잘 진행 되었다

■ 강수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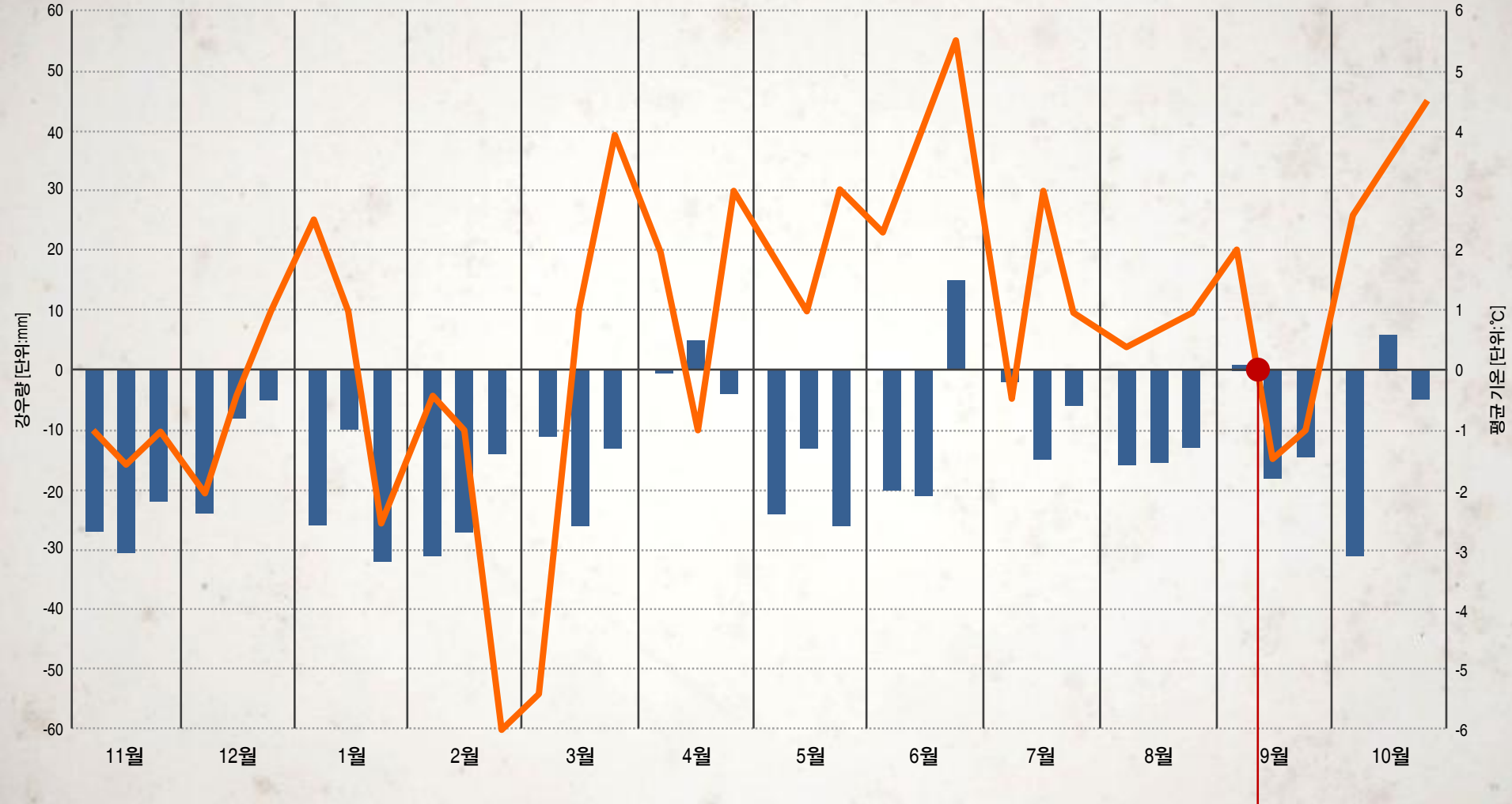
따뜻하고 건조한 기상 조건 덕에 개화도 잘 진행되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2005년 여름 동안의 강우량은 표준치의 절반 수준이었고, 평균 기온이 1.7도 이상 유지하였다. 이례적인 기상 조건으로 포도 나무의 성장 주기에는 매우 좋았으며, 빠른 착색과 질병 피해도 거의 없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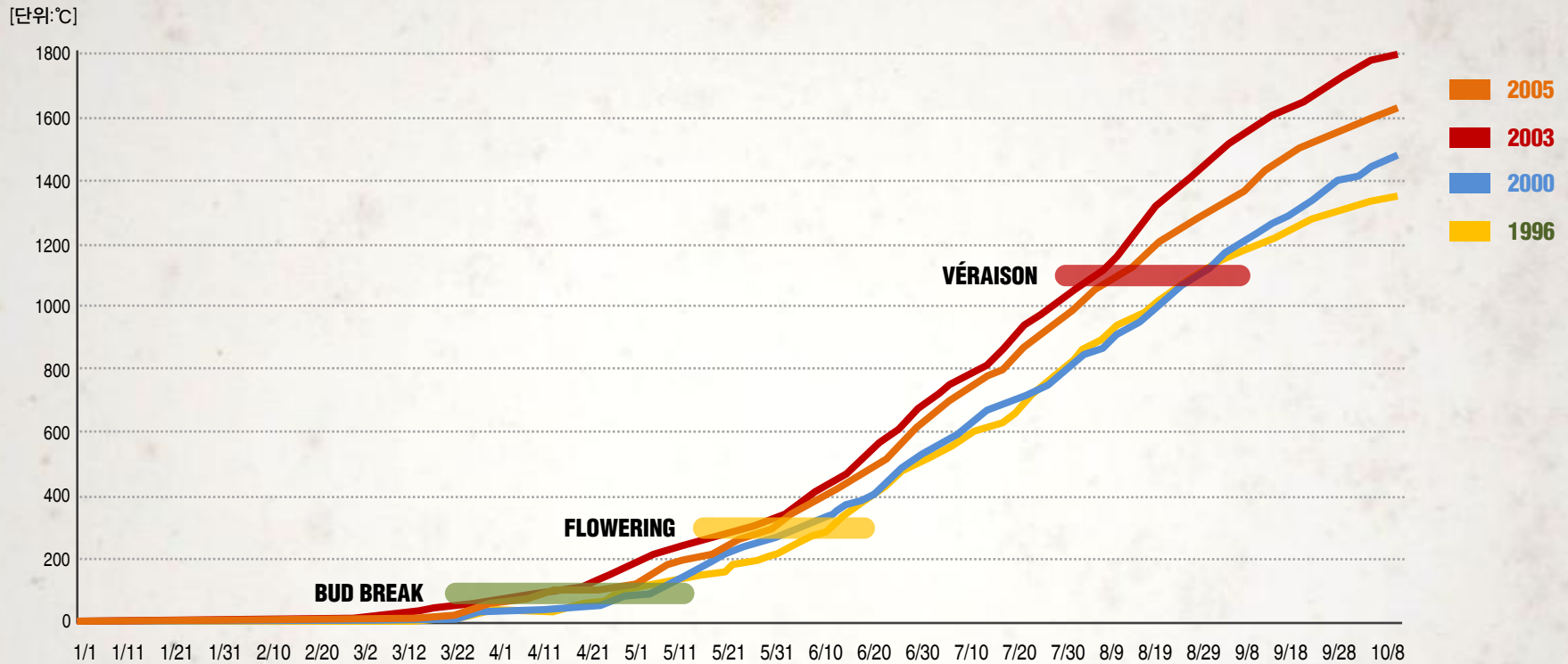


포도 껍질의 페놀 성분과 과즙의 당도 수치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VINTAGE REPORT 2005



일 평균 10도 이상 기온 합계표



2005 빈티지 분석

2000빈티지와 2003빈티지 사이의 그레이트 빈티지

2005년은 일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지속되는 날이 많았다

과도한 폭염의 2003빈티지와 훌륭한 기상 조건의 2000빈티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해이다

2003빈티지와 비교해, 여름철 야간 기온이 서늘했으며, 그로 인해 포도는 천천히 성숙했다



VINTAGE REPORT
2014

[VINTAGE POINT: **94**, 속성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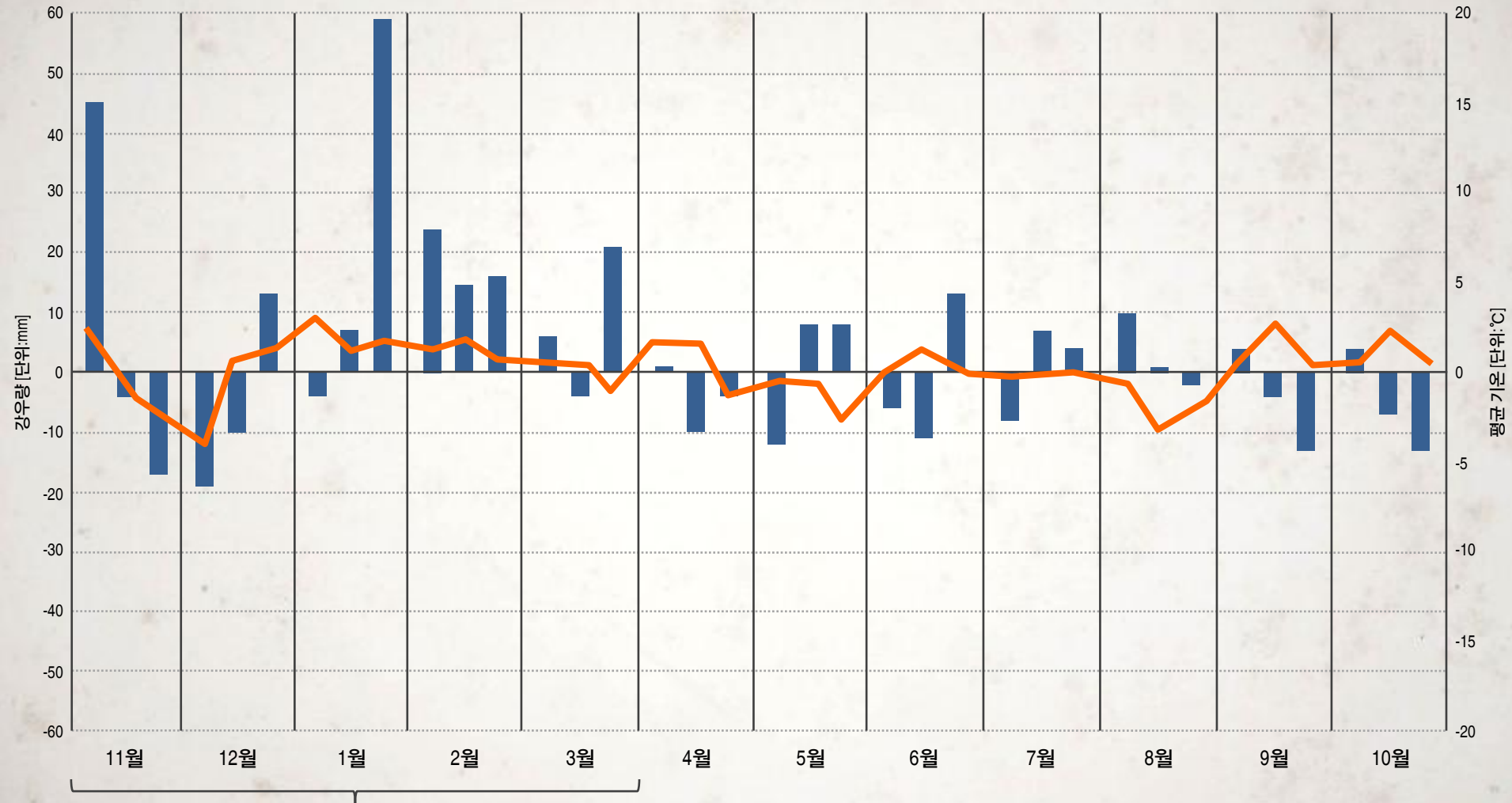
“

2014빈티지는 뛰어난 빈티지로, 2005년 이후 오랫동안 보지 못 했을 정도로 개화 시기가 빨랐지만 여름의 시작은 나쁜 상황이었다. 흐린 날과 폭풍우가 빈번했으며 그로 인해 포도 나무는 수분 과잉 상태로 착색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상 상태가 극적으로 반전되어, 비가 그치고 따뜻한 햇살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주 특별한 빈티지로 변화하였다. 여름의 시작과 끝 사이에 마치 계절이 바뀐 것 마냥 대반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포도가 익어가기만을 기다리며, 구획 별로 하나 하나씩 수확을 개시하였다. 2014빈티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빈티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품종은 서서히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점 없는 와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4빈티지는 위대한 빈티지로, 품종 캐릭터를 직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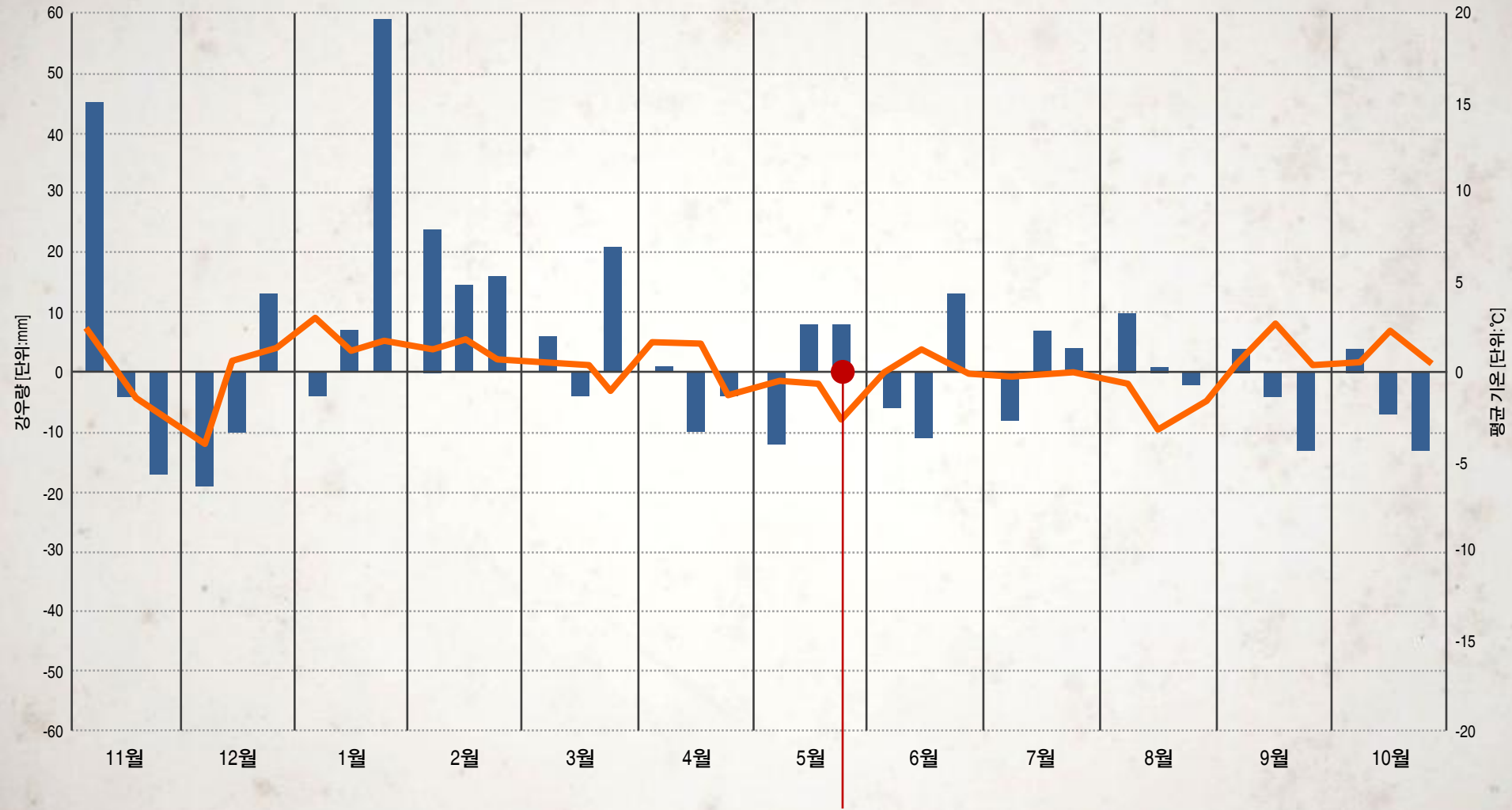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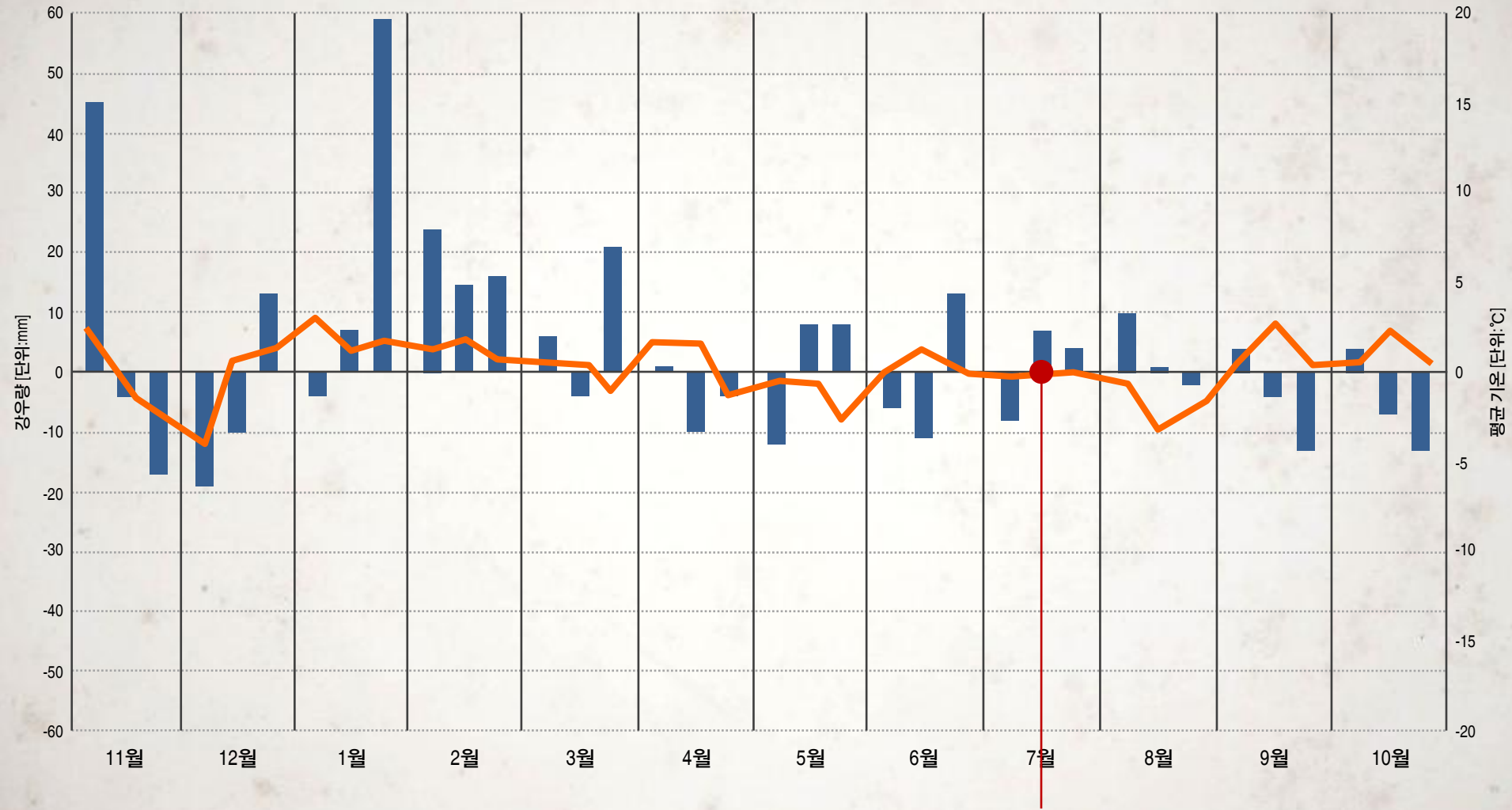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봄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가뭄을 감안할 때 지하수를 보충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일반적인 해보다 평균 기온이 2도 가량 높았고, 이는 포도 나무의 성장 주기가 2주 일찍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업자들은 올 한 해가 빨리 시작되는 것은 기뻐했지만, 봄 서리에 대한 위험도 같이 걱정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3월 말까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아가 2주 정도 일찍 시작되었다. 하지만 5월 말 습하고 추운 기상 조건으로 인해 개화가 늦었으며, 특히 조생종 품종인 메를로의 열매 형성 불량을 야기했다. 6월 기상 조건이 호전되어 대다수 포도밭에 완벽하게 개화가 진행되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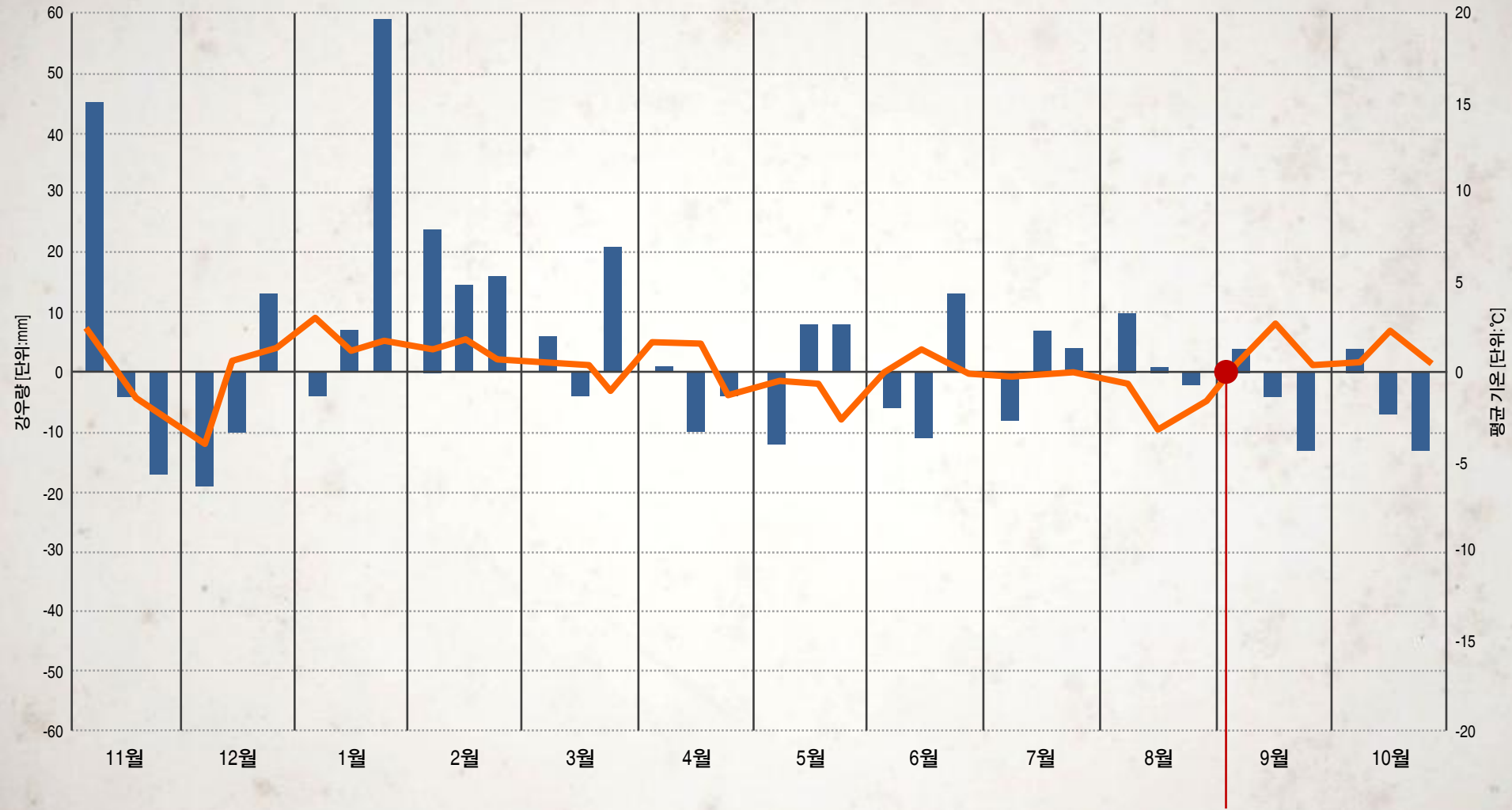


6월 말까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봄 서리 위험에서 벗어났고, 2주 일찍 발아한 혜택을 이어갔다. 하지만 7월에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착색이 늦어졌으며, 2주간의 이점이 사라져버렸다.

VINTAGE REPORT 2014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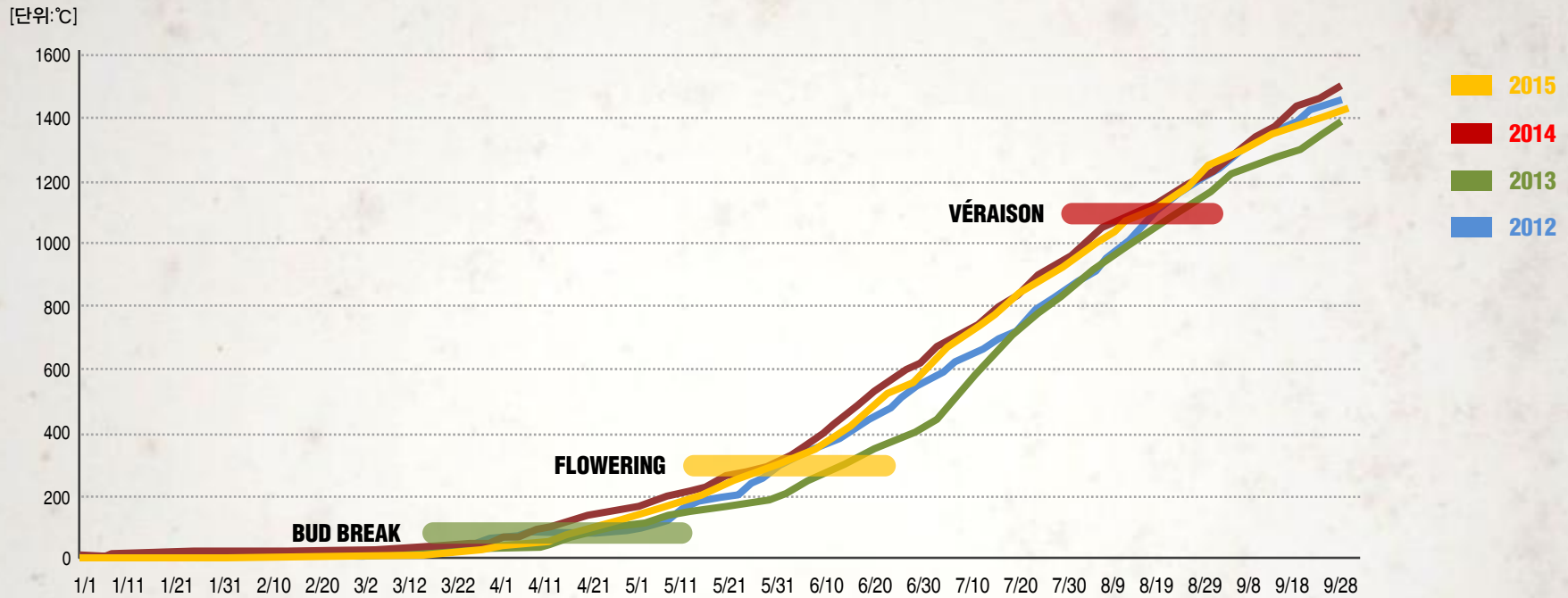


100년 만에 가장 길고, 뜨겁고, 건조한 인디안 썸머로 인해 대부분의 포도 나무는 8월 말에 착색이 진행되었고, 9월 엄청난 햇살, 더위로 인해 메를로 품종은 큰 혜택을 보았다. 9월 말에서 10월 말에 걸쳐 모든 포도는 완숙하였으며, 만생종인 까베르네 품종도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VINTAGE REPORT 2014



일 평균 10도 이상 기온 합계표



2014 빈티지 분석

2012, 2013 빈티지랑 비교해 돋보이는 빈티지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2014 빈티지의 생장 주기는 빨리 시작되었으며, 4월 중순까지 온화한 날씨가 지속
보통 때보다 훨씬 온화한 날씨로 인해 포도 나무의 생장 촉진을 가져왔다

5월 기온이 크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개화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6월 기상 상태도 좋았다

8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포도 성숙도에 걱정을 했지만, 가을 비가 한동안 오지 않고 온화한 기후의
인디언 썸머로 인해 포도의 성숙도가 매우 좋았으며, 최근 빈티지와 비교해 일조량과 기온이 높았다



VINTAGE REPORT
2009

[VINTAGE POINT: **97**, 속성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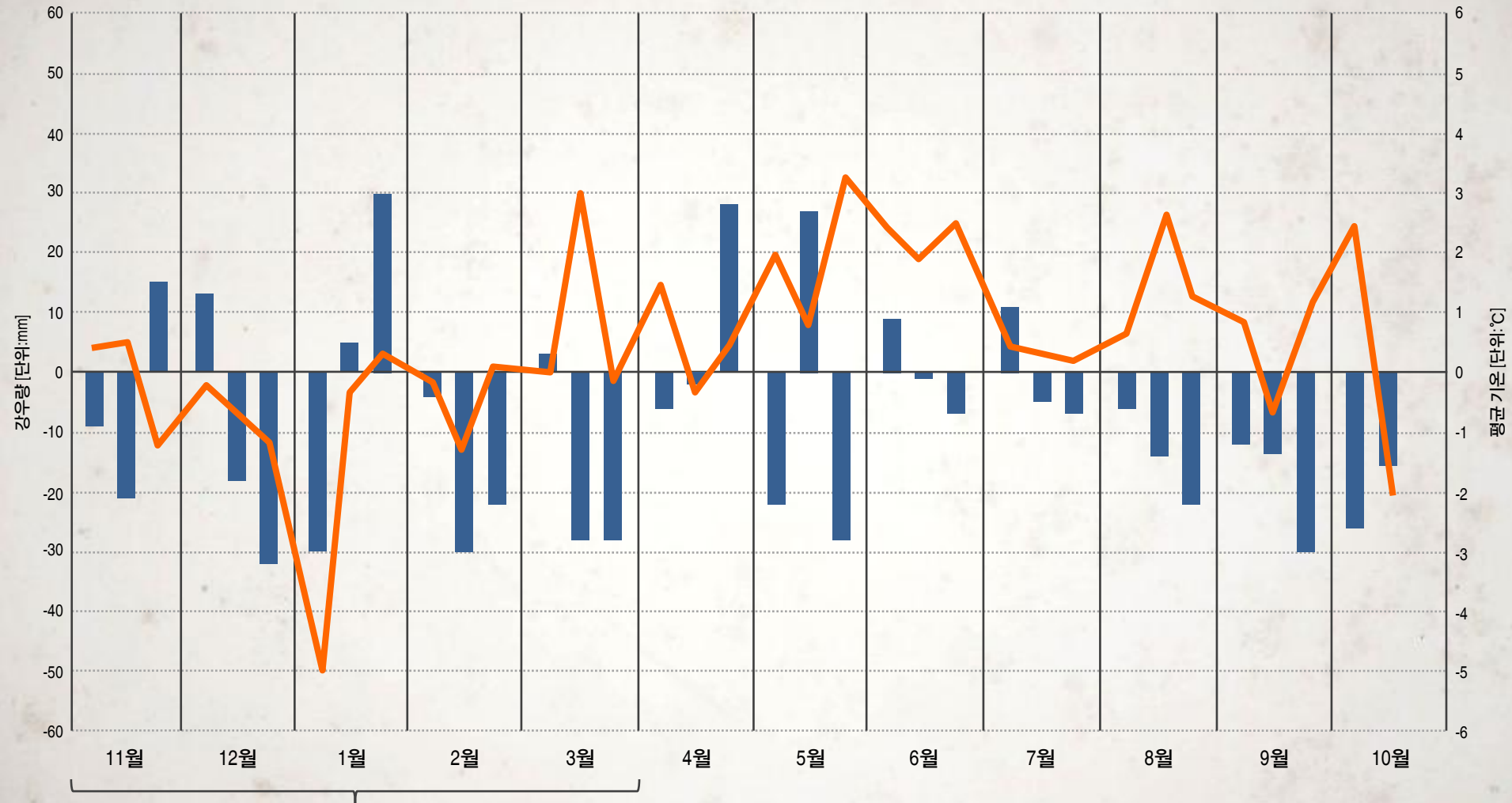
“

6월부터 여름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기상 조건은 8월, 9월, 그리고 10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7월 말부터 포도 생장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했지만 포도 생장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포도 나무는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하였다. 더운 날씨로 인해 포도 과즙의 성분과 페놀의 성숙 차이가 점차 발생해 인내심이 요했지만 결국 좋은 기상 조건을 갖추면서 아주 완벽한 포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수확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아주 잘 성숙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풍부한 알코올과 풍만한 타닌, 농축미와 과실 풍미 등이 균형 잡힌 와인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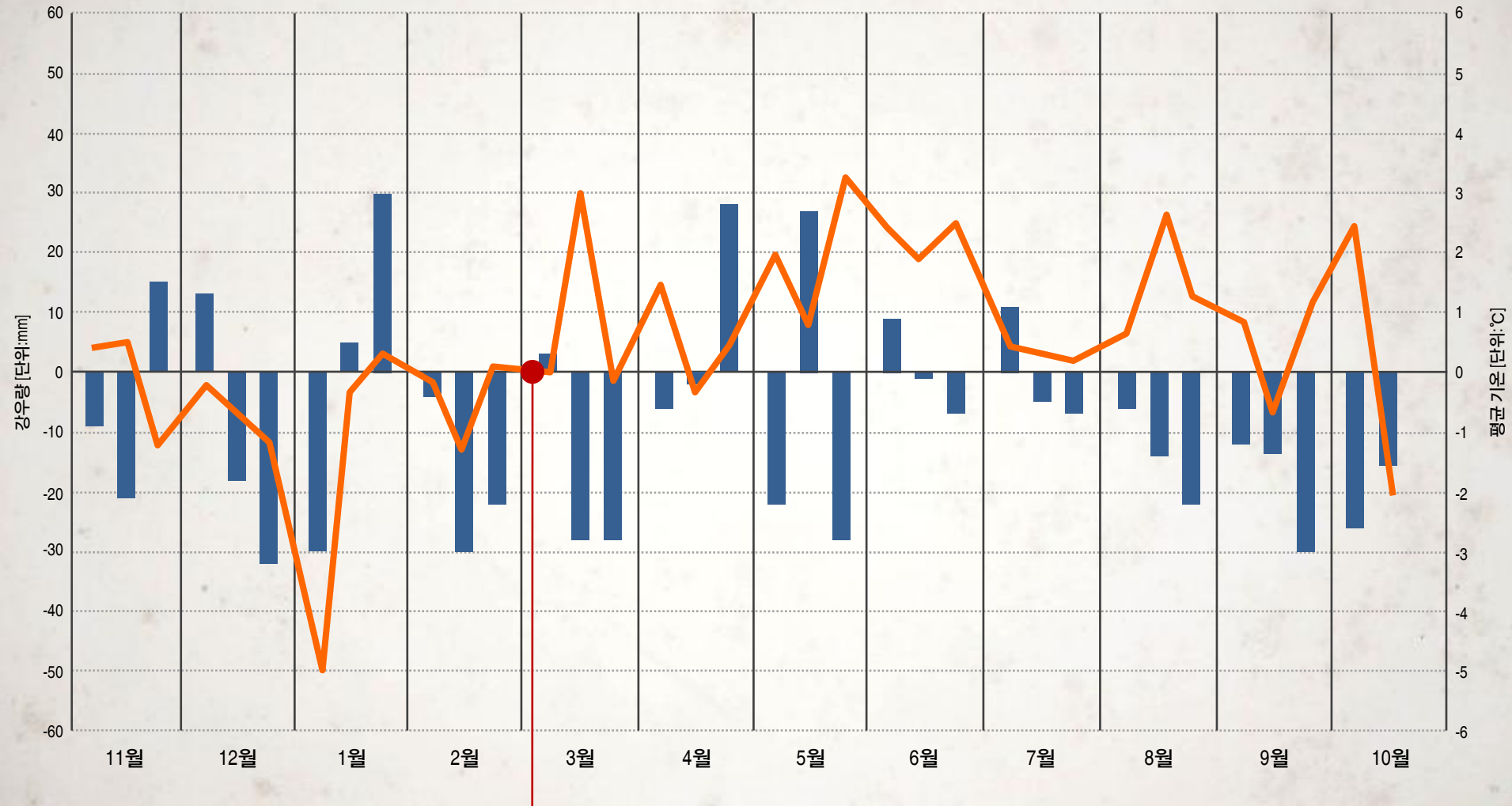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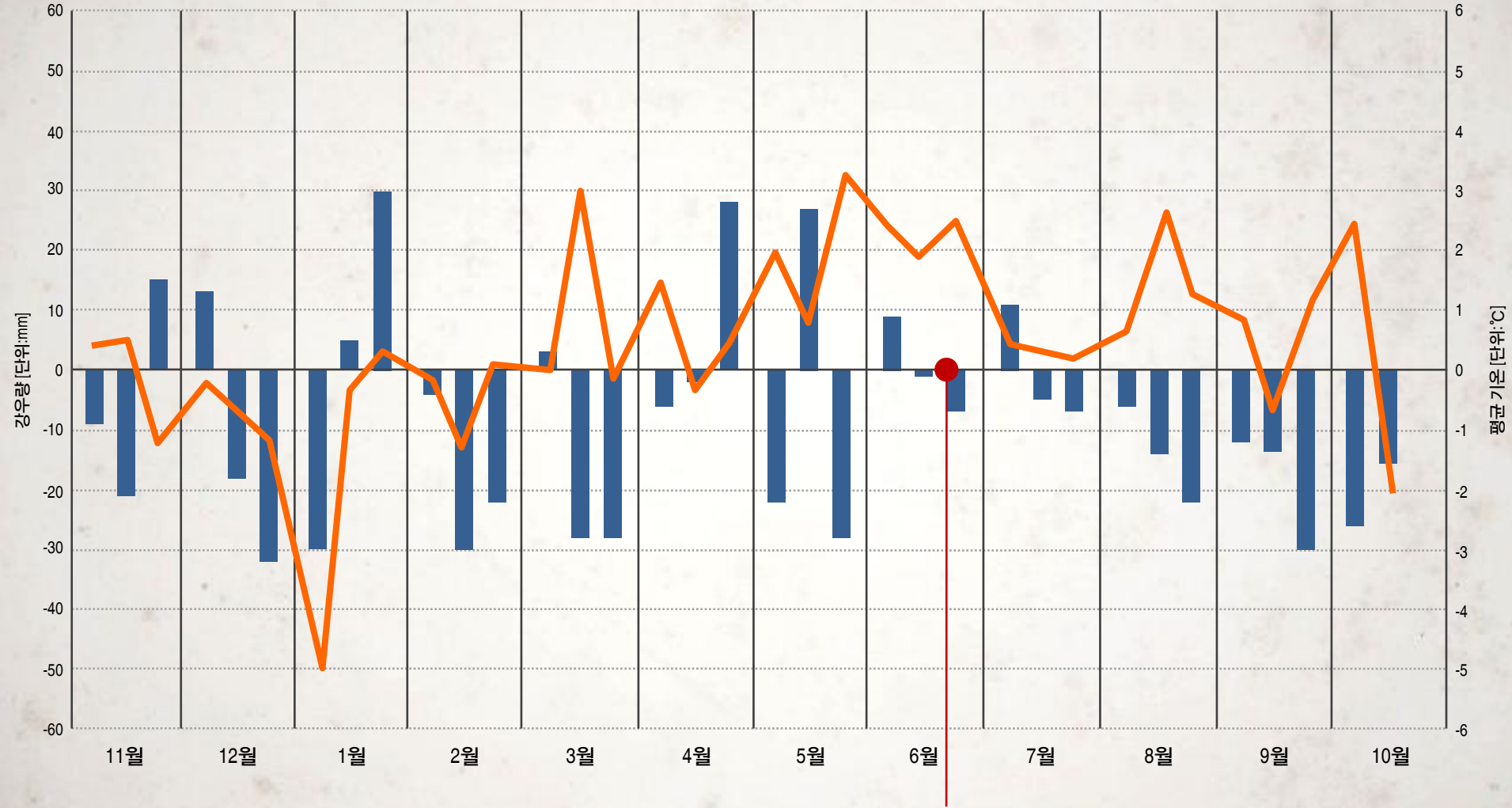
겨울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낮았으며, 연 초에 심한 추위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겨울 강우량이 평소보다 거의 30% 적었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곰팡이 피해가 없었지만, 여름 기간 동안 사용할 지하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비는 부족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3월 온화한 날씨로 인해 규칙적으로 발아가 시작되었다. 4월, 5월에 걸쳐 부분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겨울 동안 부족한 지하수를 어느 정도 보충했으며, 7월까지 포도 나무가 성장하는데 완벽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졌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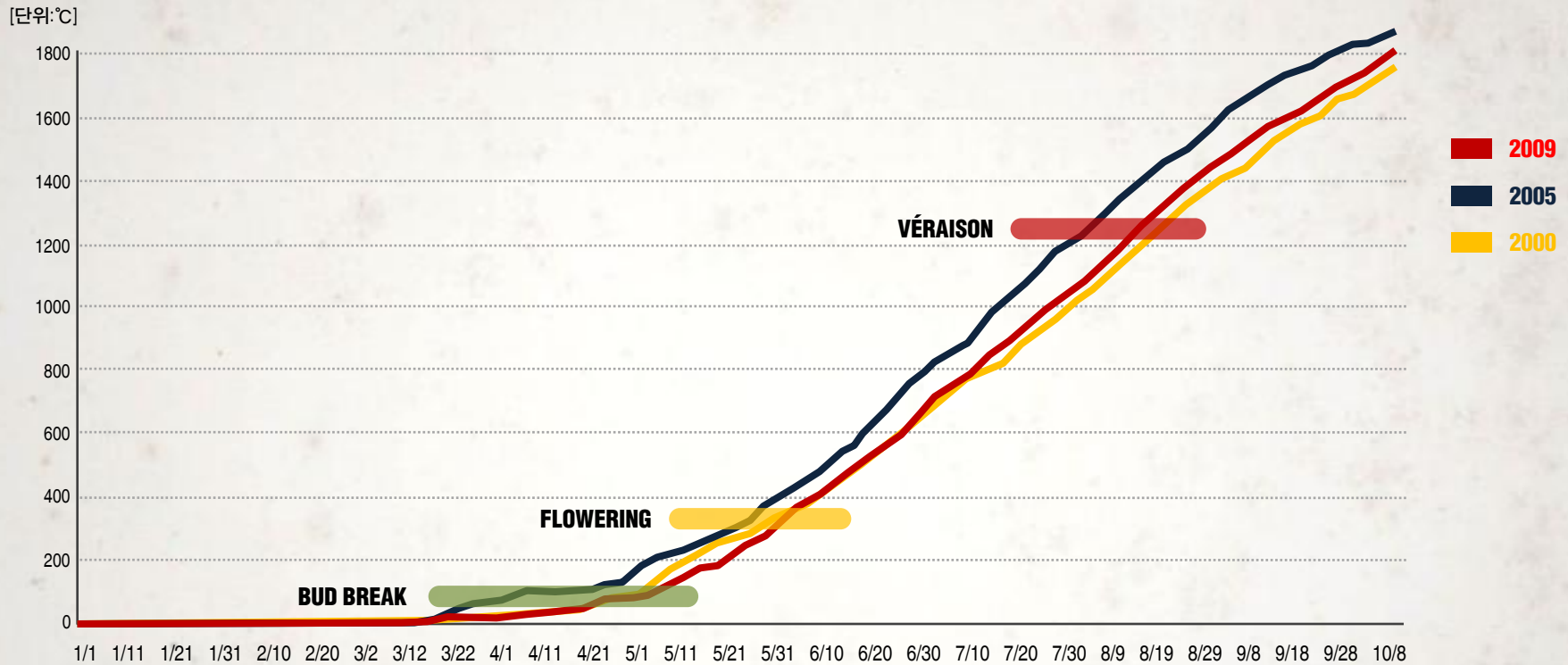


좋은 시기에 개화가 이뤄졌으며, 풍부한 일조량과 건조한 날씨가 여름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포도는 익기 시작했다
곰팡이 피해도 매우 적었으며,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햇살도 너무 뜨겁지 않아 포도 성숙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VINTAGE REPORT 2009



일 평균 10도 이상 기온 합계표



2009 빈티지 분석

2000빈티지와 닮은 그레이트 빈티지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2005빈티지와 비교하면, 포도 나무의 성장 주기가 전반적으로 늦게 시작하였다
따뜻한 봄과 여름의 풍부한 햇살로 인해 포도 나무의 성장 주기가 가속화 되었고, 2000빈티지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며
점차 훌륭한 빈티지로 변화하였다. 데이터를 보면, 2009년은 2000, 2005빈티지와 패턴이 비슷하게 변화한다
2005빈티지와 비교해 발아는 늦었지만, 그 후 2000빈티지와 같이 훌륭한 성장 속도와 성숙도를 이끌어 낸다

Source: www.manonwine.co.kr
maisonduvindemargaux.com



VINTAGE REPORT
2008

[VINTAGE POINT: **93**, 시음은 가능하나 적정기 상태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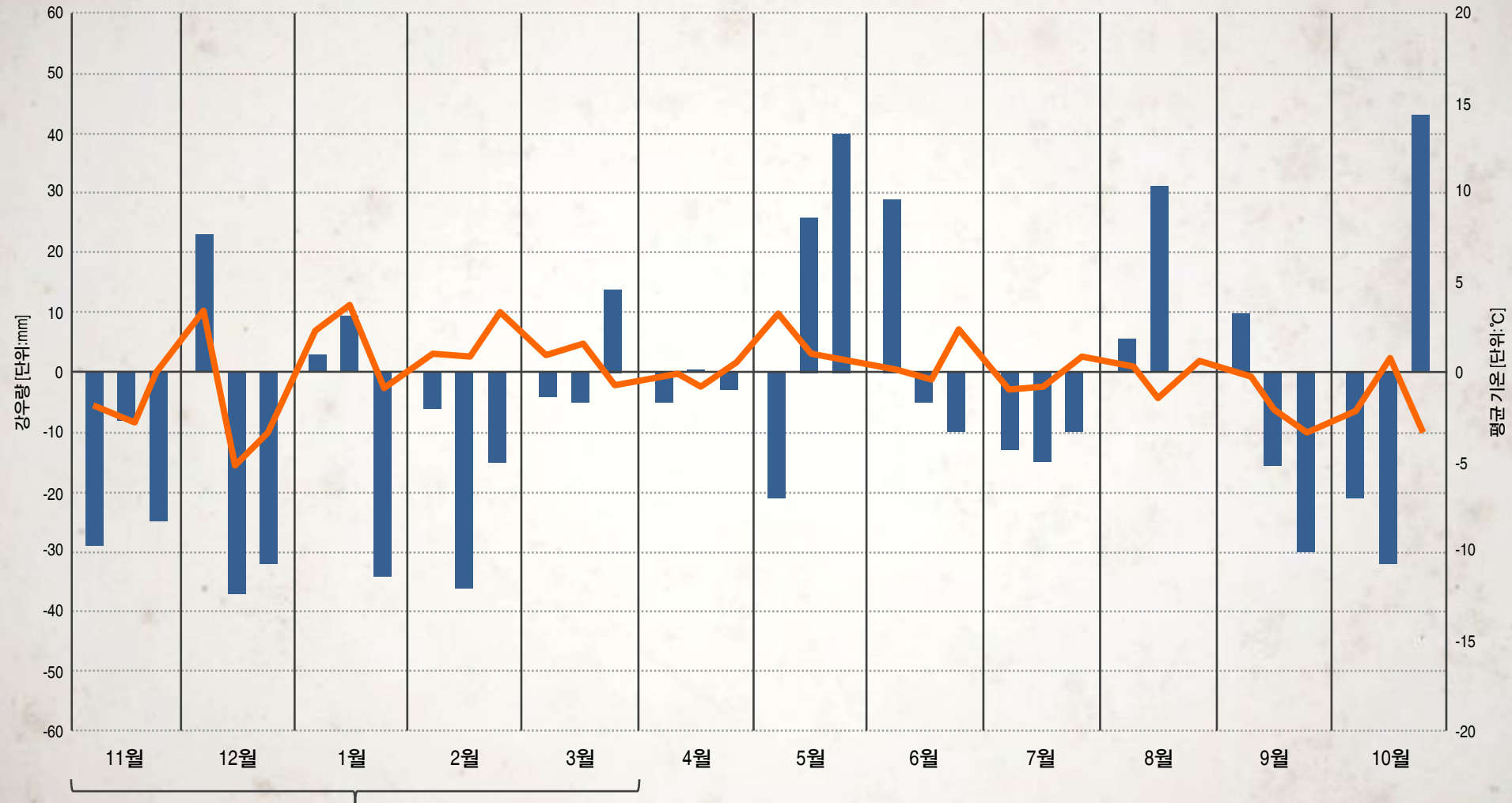
“

2008빈티지는 모든 예상과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적인 빈티지로 기억될 것이다. 9월 14일, 악천후로 인해 상황은 극도로 암울했지만, 이내 햇살이 비췌졌고 30일 이상 시원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모든 품종은 동시에 수확을 개시하여, 10월 말까지 수확이 이루어졌고, 구획 별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매우 적은 수확량과 재배업자의 노력으로 건강하고 잘 익은 상태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발효 과정에서 과실미와 균형 잡힌 밸런스를 지닌 와인 생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8빈티지는 와인에 강건함과 우아함까지 제공하여 우리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지만, 품질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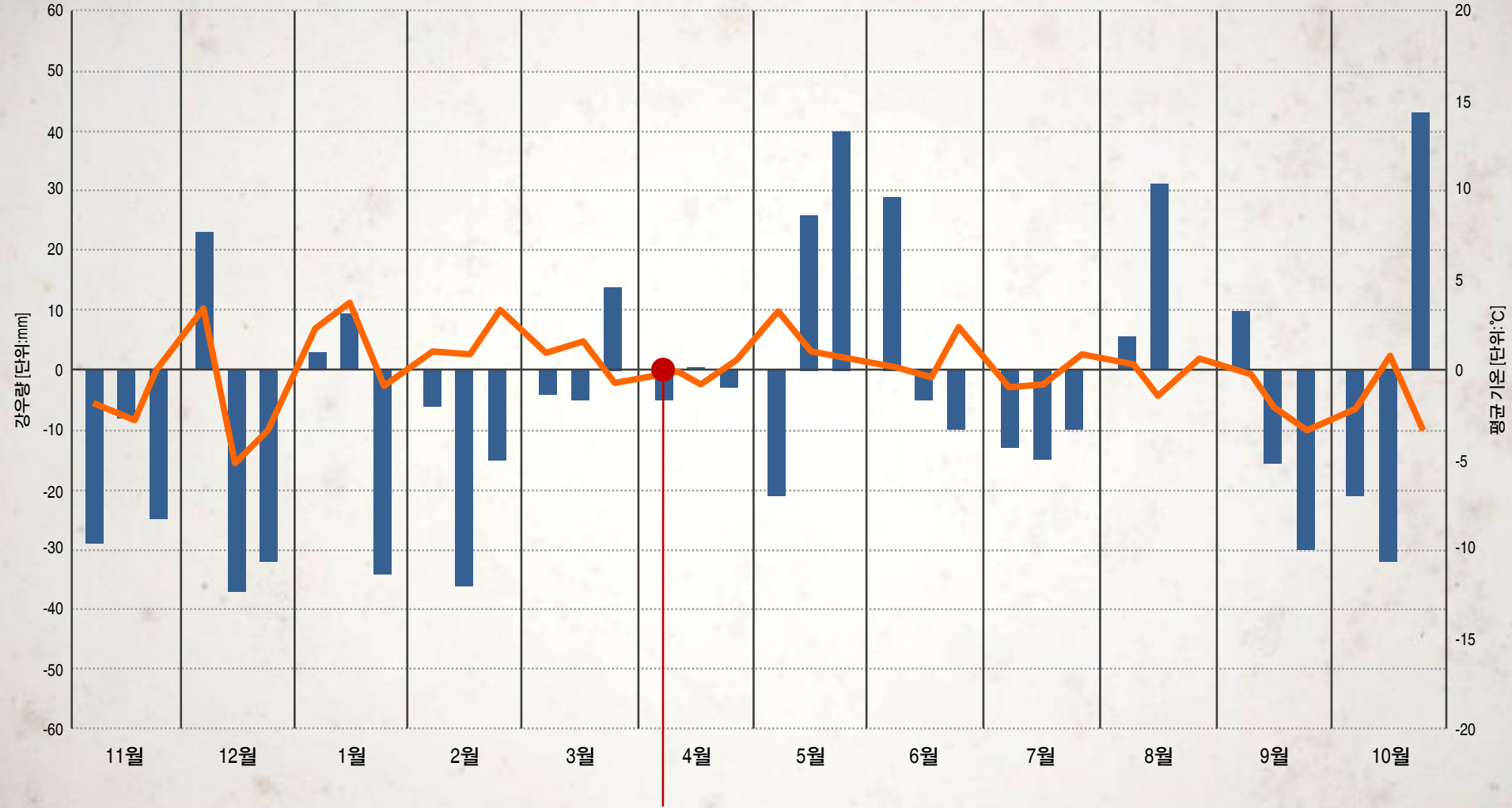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수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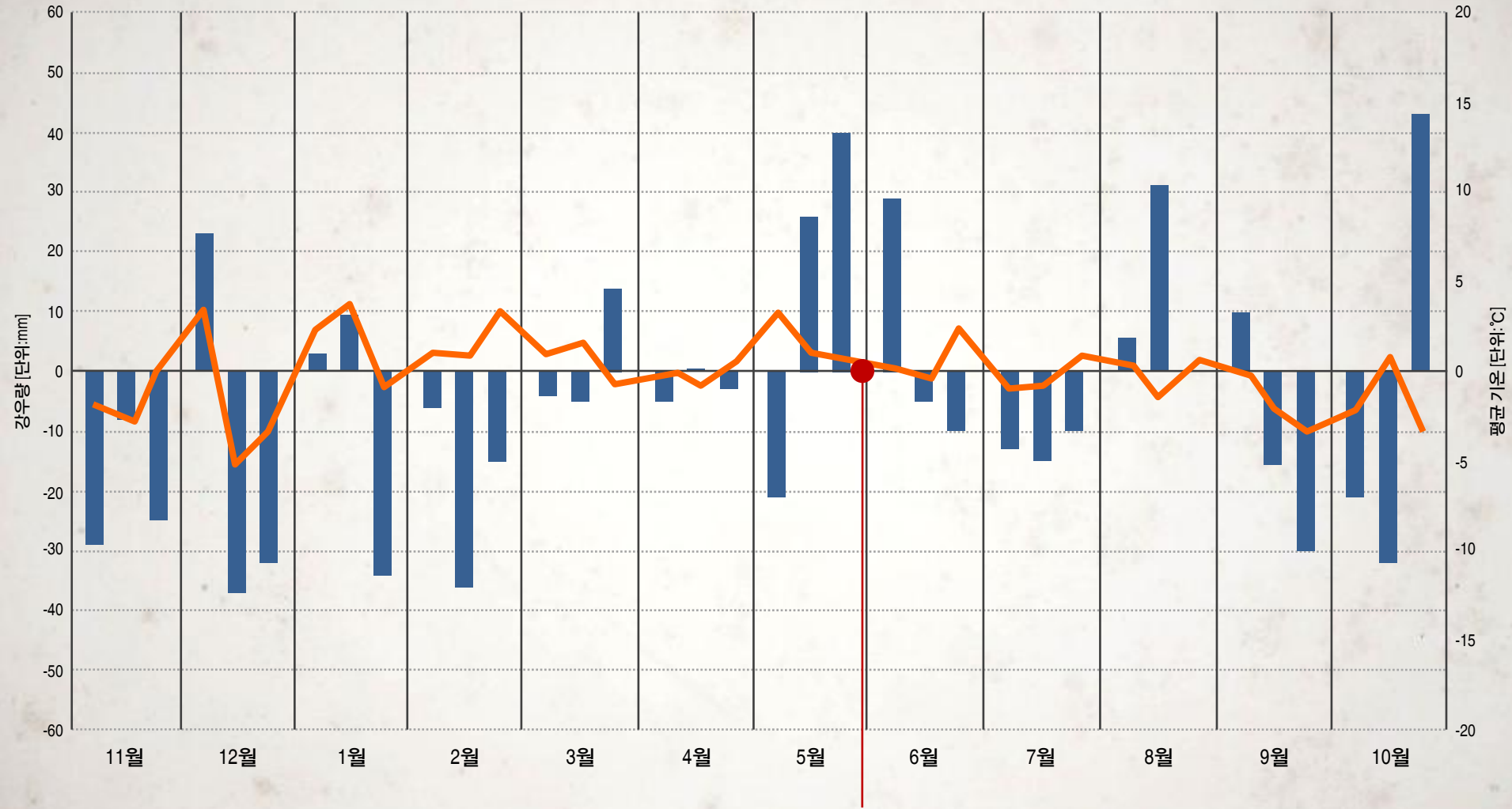
건조한 겨울, 누적 강수량은 평균보다 200mm 정도 줄었으며, 올해 들어 7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 가능한 물의 감소로 인해 포도 나무의 성장 활동이 일찍 멈추었고 성숙 기간도 길어졌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된 혹독한 추위로 질병에 대한 위험도는 감소하였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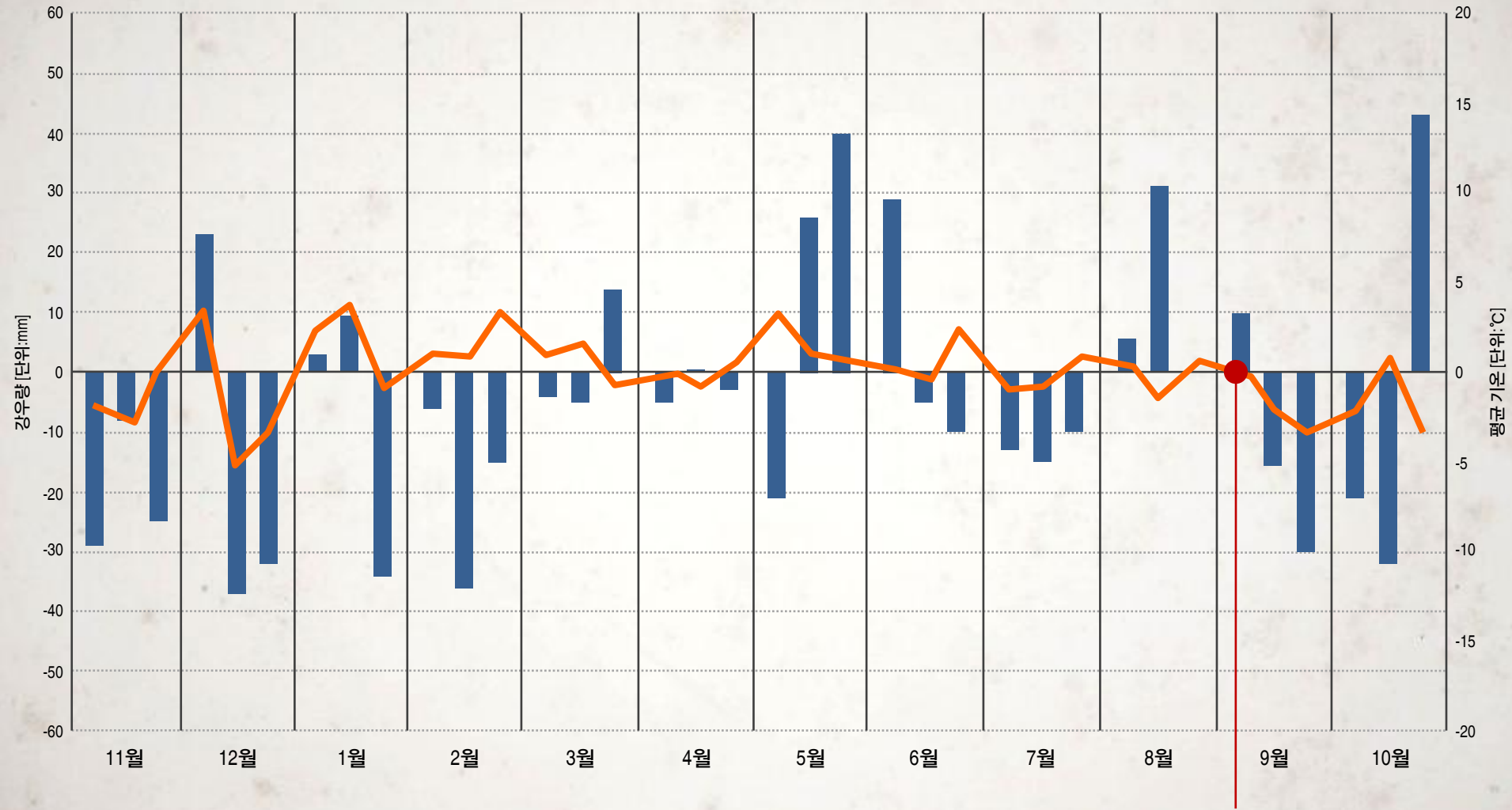
4월 7일, 발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갑자기 영하 2도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서리 피해에 취약한 구획은 영향을 받아 약 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5월 28일 마고 원산지에 격렬한 우박이 내렸고, 국지적인 피해가 상당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구획은 최대 75% 달할 정도였다
6월 초에 내린 비로 인해 조생종인 메를로 품종의 개화가 지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열매 형성과 결실 불량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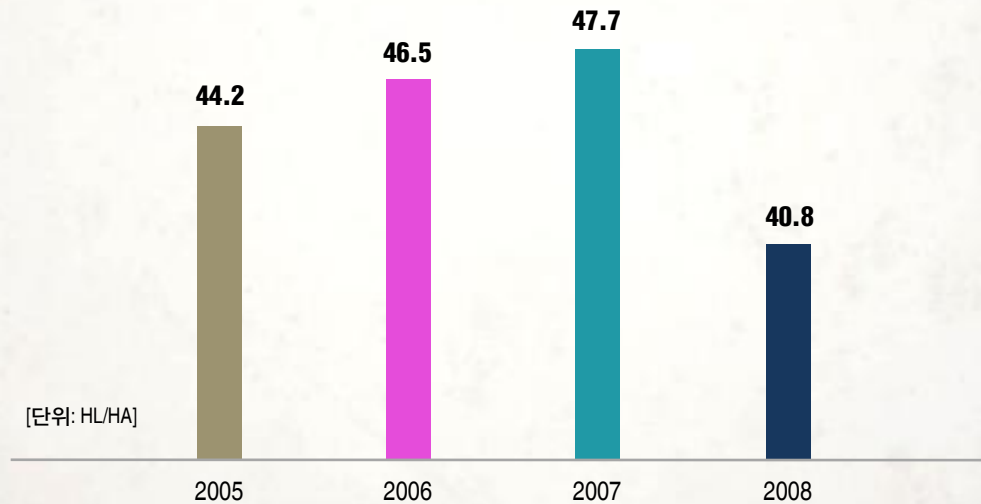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시즌 말부터 따뜻한 햇살과 야간에 서늘한 기온과 함께 건조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포도는 천천히 익어갔지만, 보트리티스 균의 번식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힘든 빈티지였지만, 수확 철에 결국 최적으로 성숙된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빈티지 마고 AOC 수확량

[마고 AOC 평균 수확량]



[단위: HL/HA]

2008빈티지는 포도 성장 단계 중 발아 시기의 온도 저하와 5월 중순의 우박 피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VINTAGE REPORT
2006

[VINTAGE POINT: **90**, 시음 적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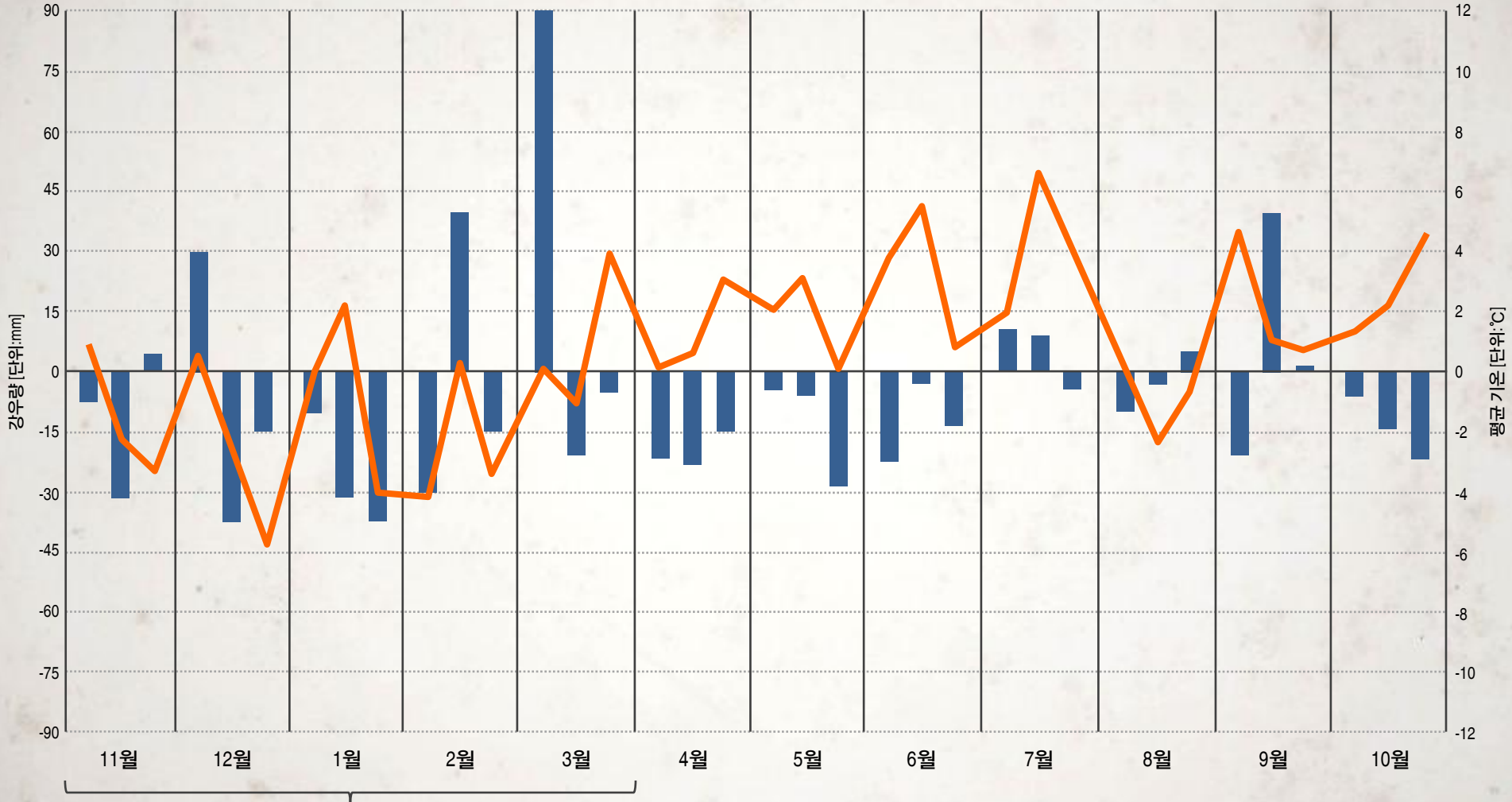
“

2006년 7월의 날씨는 오랜 더위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8월의 건조한 기온 조건으로 인해 포도의 페놀 성분과 당도가 높게 형성되었으며 9월초 기온이 상승해
포도 송이는 더욱더 농축되었다. 9월에 내린 소나기는 주로 야간에 산발적으로 내렸으며
대부분이 토양에 흡수되어 이미 성숙된 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갈 토양의 원산지인 경우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어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다수의 재배 업자들은 선과대를 사용해 양질의 포도를 선별하여 과실 풍미를 갖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2005빈티지와 같이 섬세함과 밸런스가 좋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04빈티지를 연상케하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와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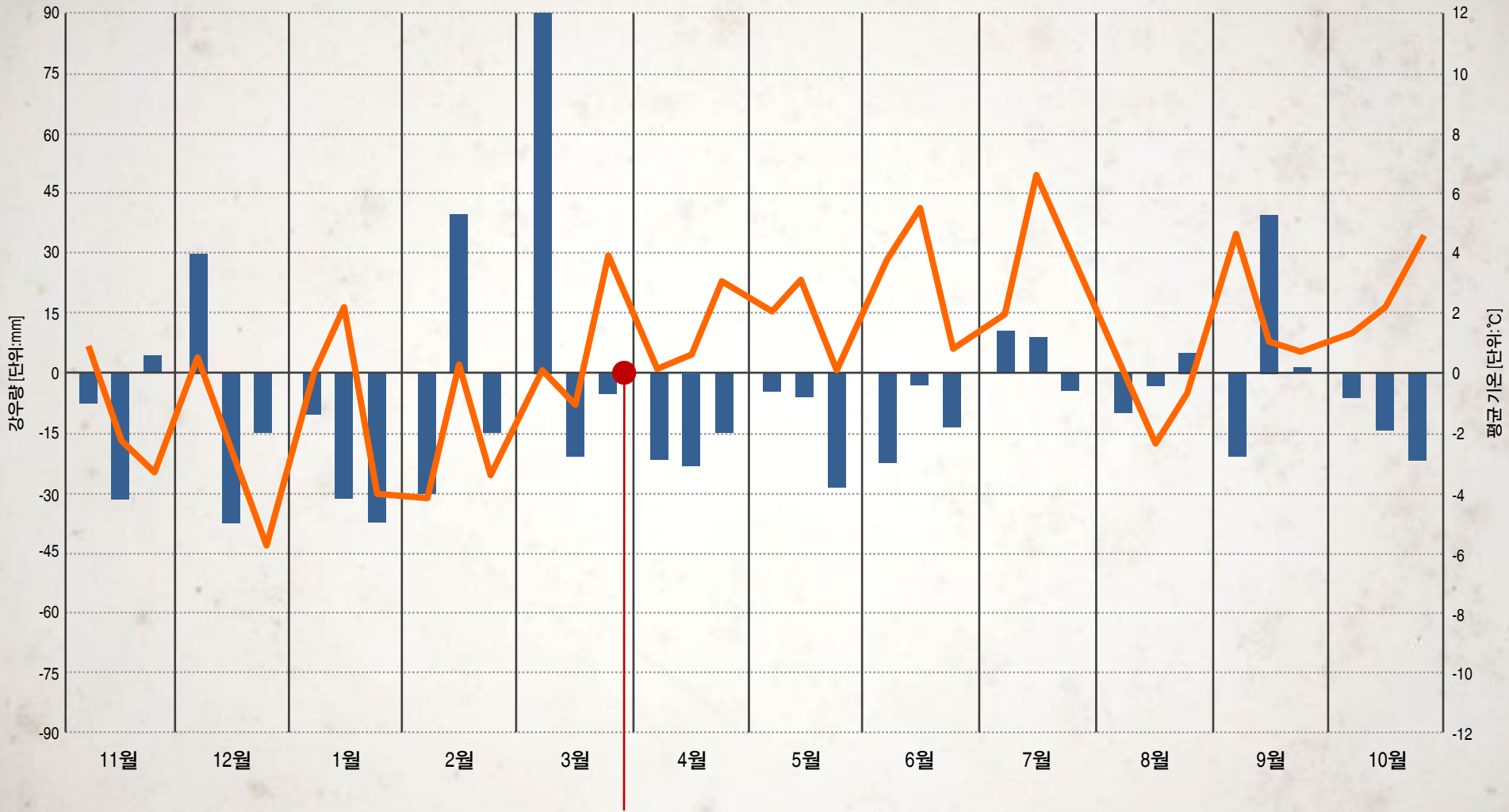
와인 양조학자, 에릭 부아쓰노 [Eric Boissenot]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1월 중순까지 매우 따뜻했지만, 평균 겨울 기온은 계절 기준에 비해 1.6도 정도 낮았다. 강우량은 평균 수치보다 70mm 적게 내렸으며, 2005빈티지와 마찬가지로 질병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수분 부족의 문제점은 발생하였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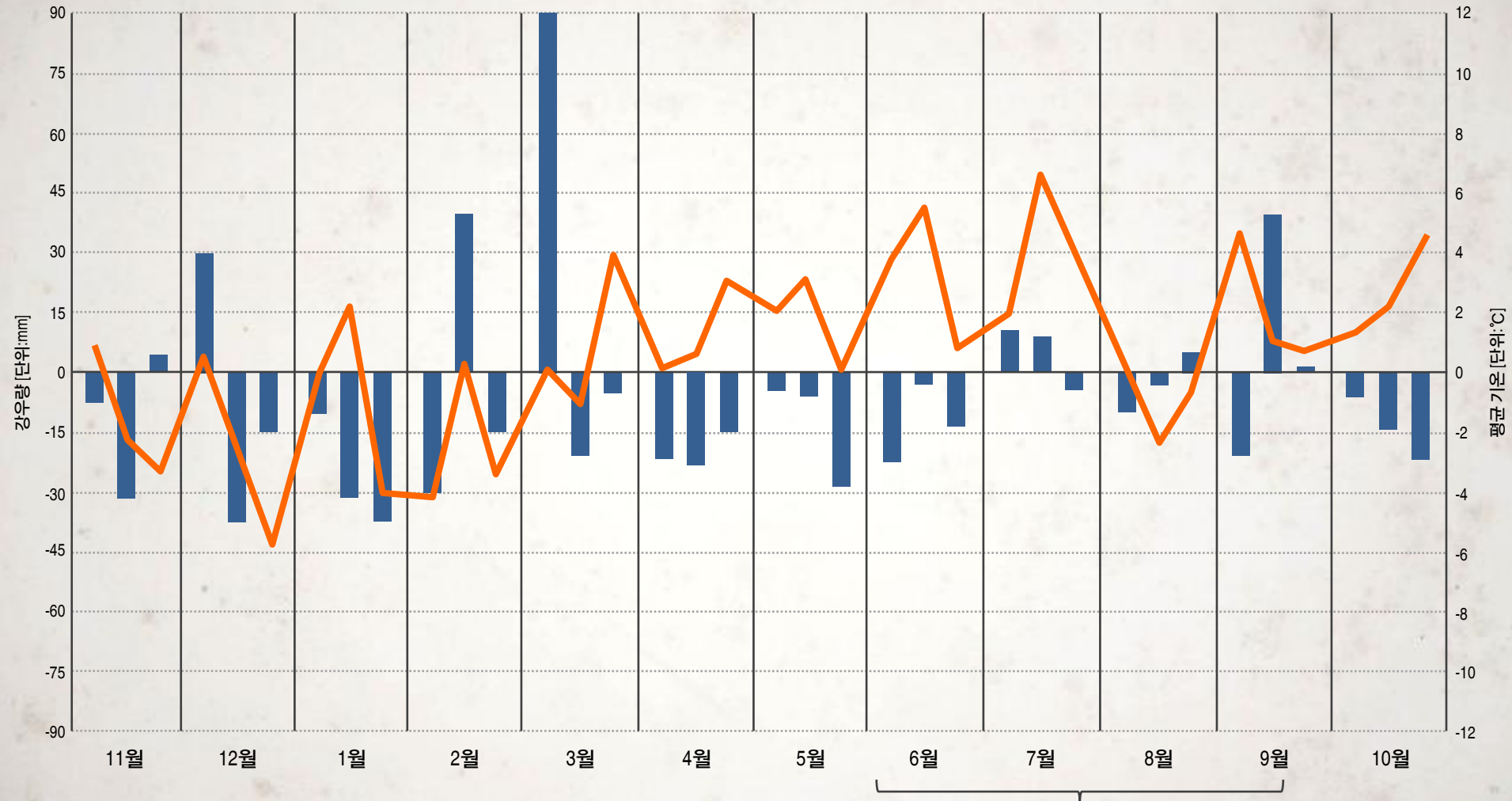


뜨겁고 건조한 봄철 기상 조건으로 구획 별로 발아가 잘 진행 되었으며, 개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VINTAGE REPORT 2006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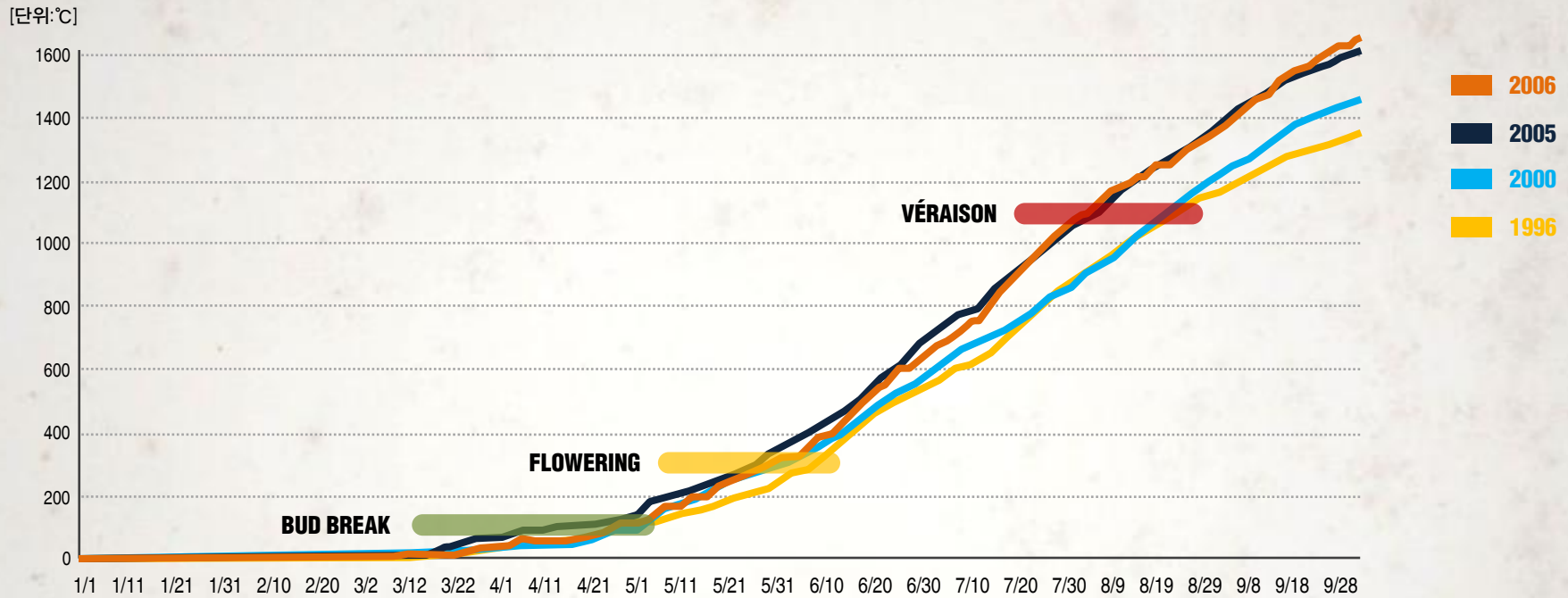


평균 여름 온도 기온보다 약 2도 정도 높게 형성되었으며, 8월 중순의 시원한 날씨는 가을철 포도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유지시켜 주었다. 9월 중순에 10일 정도 간간히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지만, 수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INTAGE REPORT 2006



일 평균 10도 이상 기온 합계표



2006 빈티지 분석

2005빈티지와 닮은 2006빈티지

기온 합계표로 보면 2005빈티지와 매우 유사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2005년에 비해 봄의 기온이 추워 발아가 약간 늦게 진행되었지만, 그 후 기온이 높아지면서
 개화와 착색 등의 성장 주기는 2005빈티지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포도의 성숙기부터 수확 시기까지 누적 온도만으로 보면 2005빈티지보다
 그래프가 더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VINTAGE REPORT
2002

[VINTAGE POINT: **86**, 시음 적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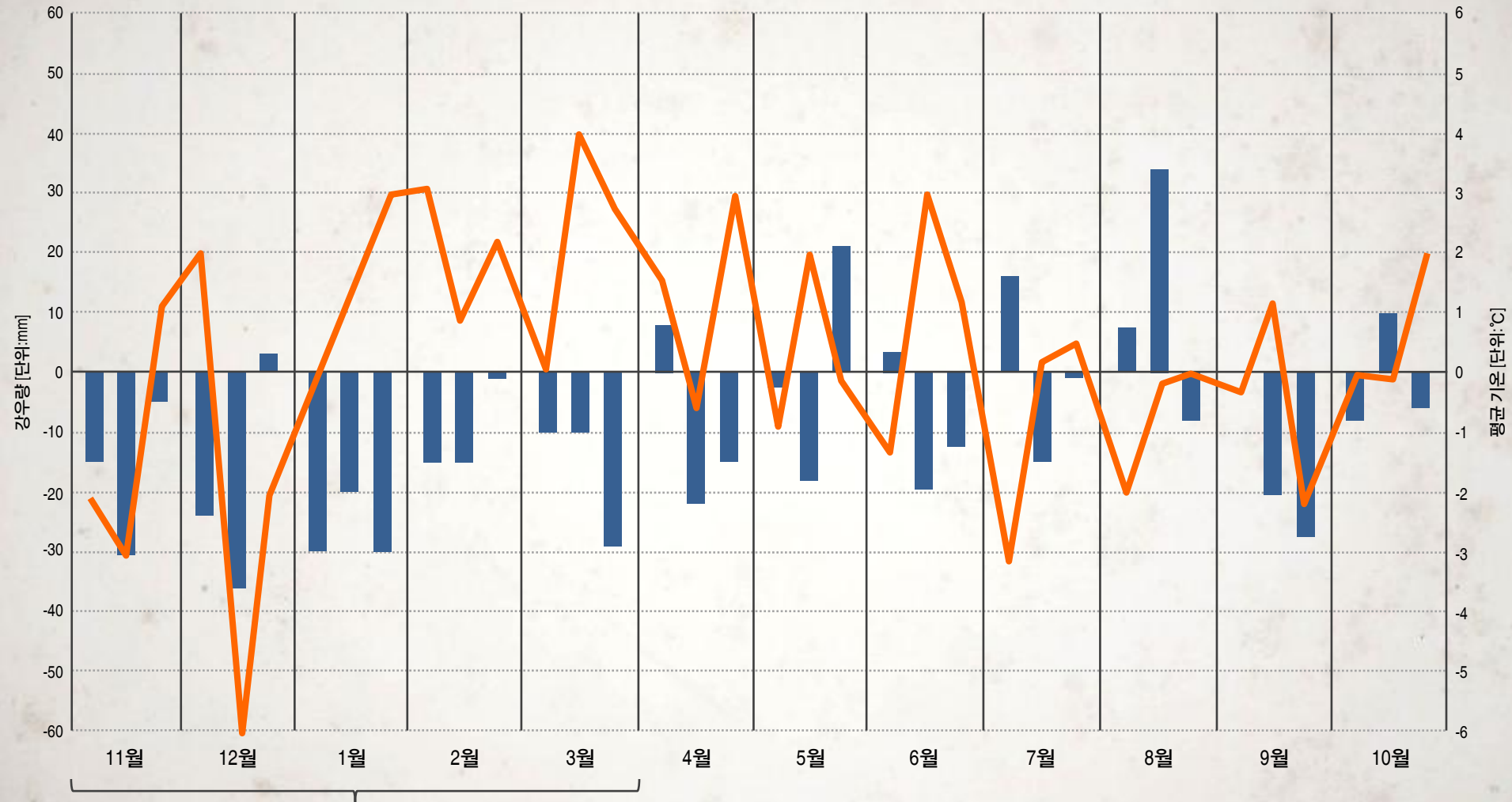
“

2002빈티지는 마치 1996, 1986빈티지와 같이 매우 훌륭한 빈티지이다
특히 까베르네 쇼비뇽을 위한 빈티지이며 마고 AOC의 경우
품종의 아로마와 타닌과 산도, 그리고 밸런스 측면에서 아주 좋은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집중도와 장기 숙성 능력까지 겸비한 위대한 와인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빈티지이다
아마도 마고 AOC의 명성을 가져다줄 빈티지 중 하나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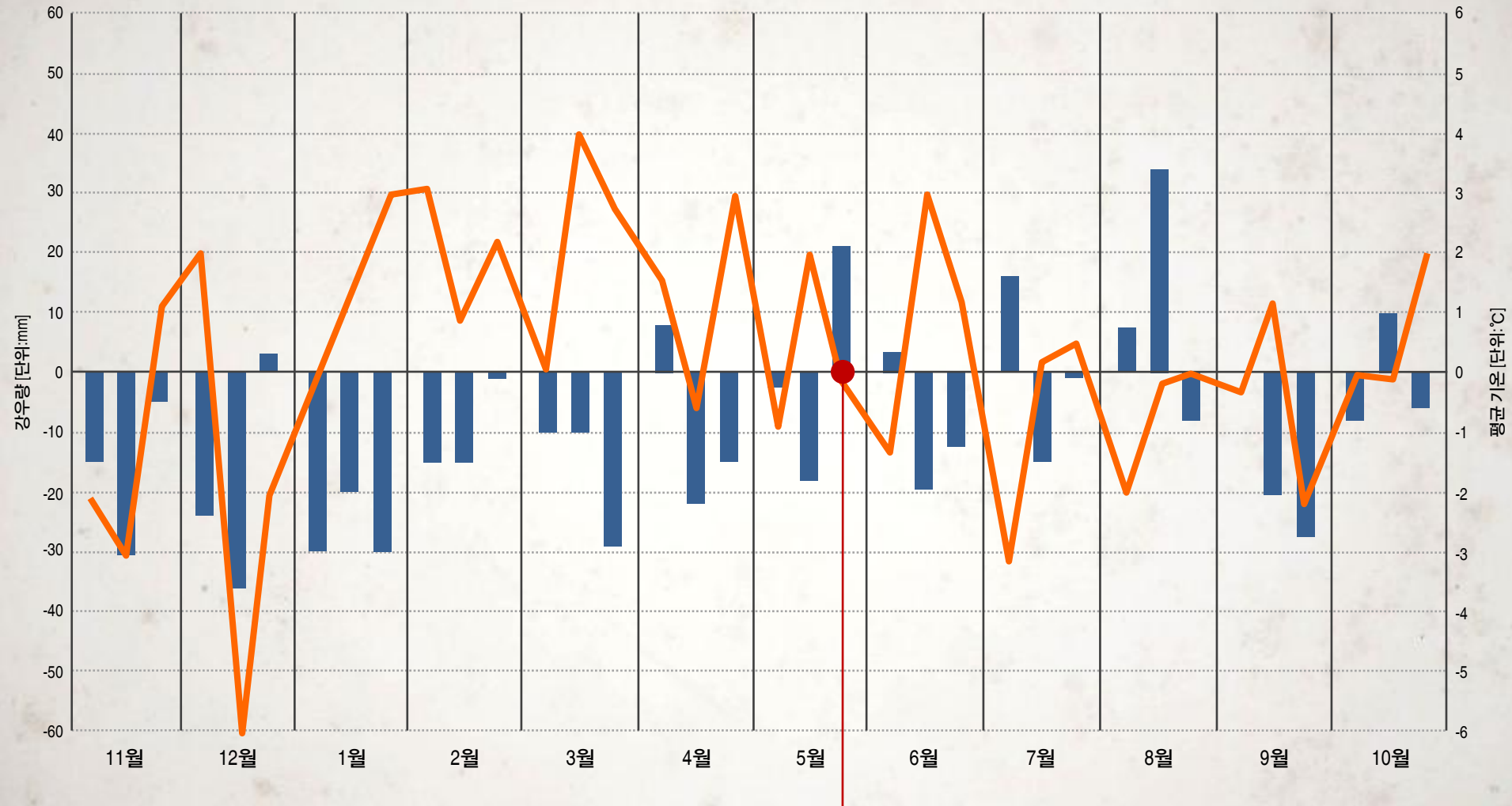
와인 컨설턴트, 자끄 부아쓰노 [Jacques Boissenot 1938~2014]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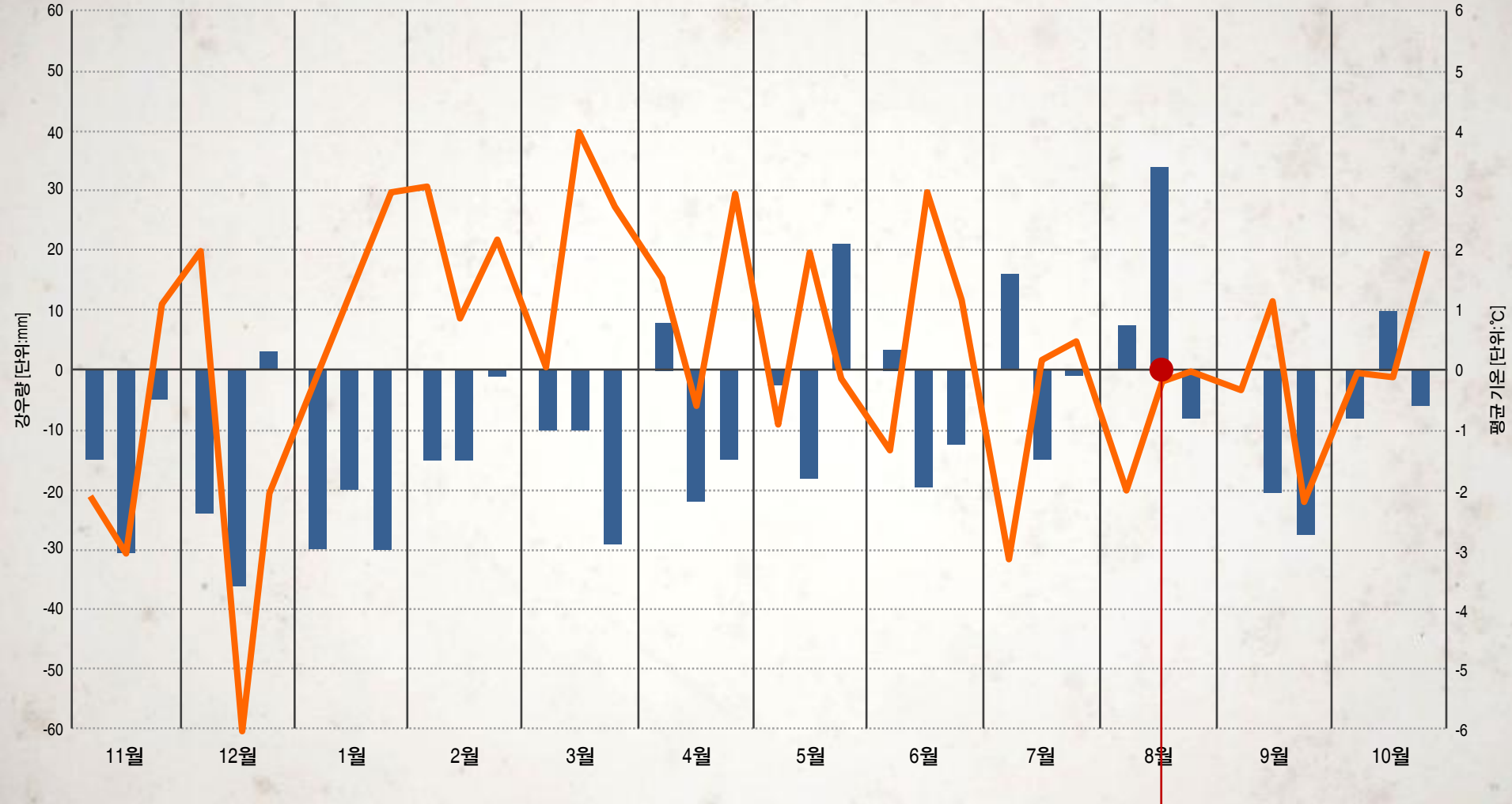
겨울 기간 동안 300mm 정도 비가 내렸으며, 평소 강우량의 30%미만 수준이며, 그 결과 발아 기간 동안 지하수 수위가 매우 낮아서 싹이 천천히 피어났게 되었다. 2000년 빈티지와 비교하면 지하수 수위가 대략 1미터 정도 낮게 형성되었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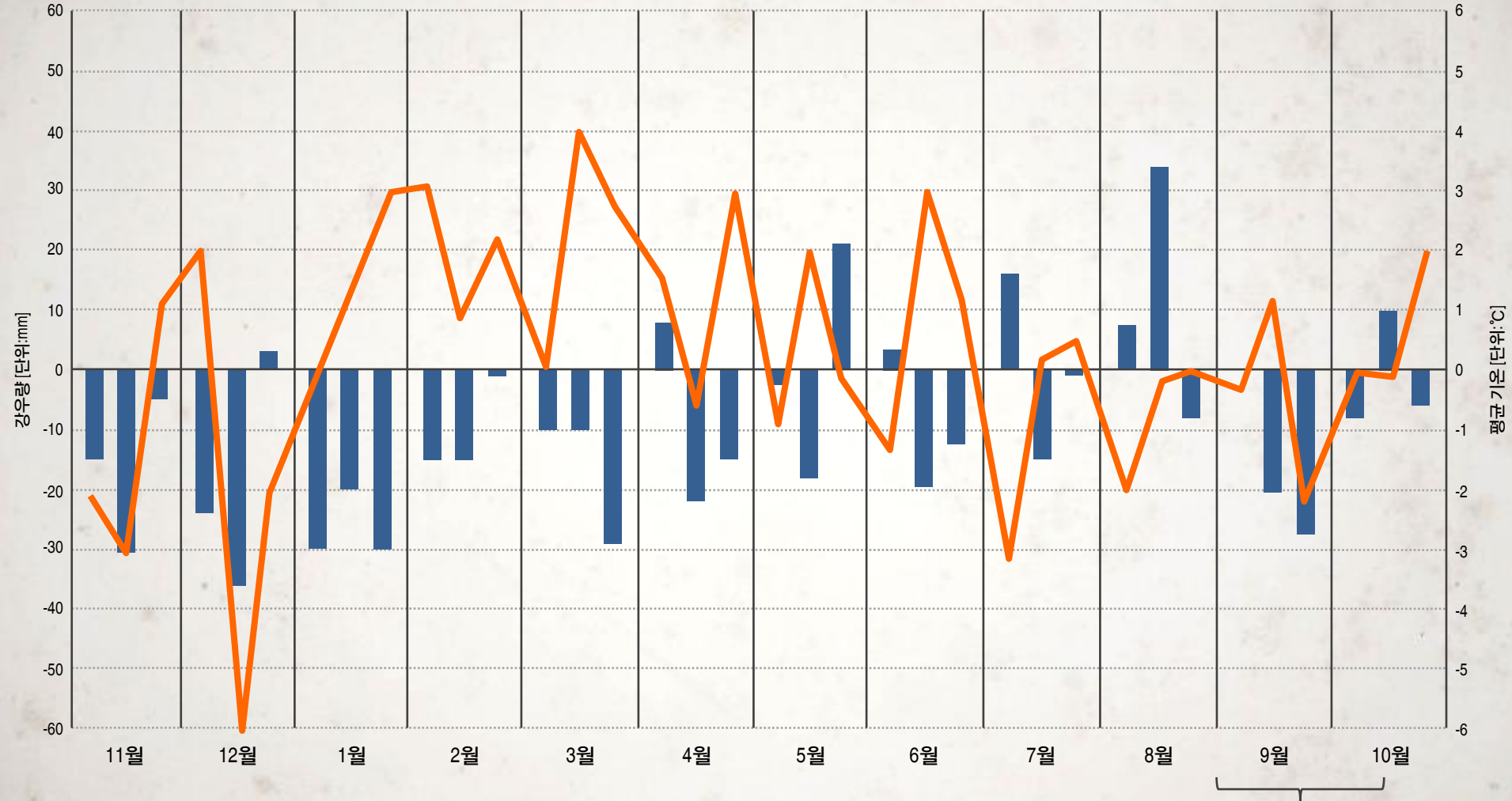
평균 기온도 1도 이상 높고 강우도 80mm 정도로 적어 좋은 기상 조건을 보여주며, 개화가 빨리 진행되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개화 기간 동안 10일에 걸쳐 51mm정도 비가 내렸으며, 꽃 수정과 밀랑다주[결실 불량] 등이 발생해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하루 동안 49mm 정도 비가 내렸지만 고무적으로 착색이 일찍 시작되었으며, 타이밍이 매우 좋았다.

■ 강우량 [mm] ■ 평균 기온



수확철 풍부한 일조량과 건조한 날일 지속되어 농축된 포도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수확 기간 동안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였다.
10월 9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포도는 발효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